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中國語 聲調 變化 例外 現象 研究
- 『廣韻』· 『中原音韻』 을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田 輝

2013년 2월

中國語 聲調 變化 例外 現象 研究

- 『廣韻』·『中原音韻』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安 在 哲

田 輝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3年 2月

田輝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3年 2月

목 차

제1장 緒論.....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과 범위.....	4
제2장 本論.....	7
1. 『廣韻』과 『中原音韻』 음운과 성조.....	7
2. 聲母, 韻母와 聲調의 상호 관계	10
3. 『廣韻』, 『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 간의 聲調變化.....	13
1) 『廣韻』, 『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의 平聲 대조.....	17
가) 次濁·全濁聲母의 平聲字가 二聲(陽平)으로 변하지 않은 것.....	19
나) 淸聲母의 平聲字가 一聲(陰平)으로 변하지 않은 것.....	23
2) 『廣韻』, 『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의 上·去聲 대조.....	26
가) 去聲字가 上聲과 去聲의 불규칙하게 변화한 것.....	27
나) 淸·次濁聲母의 上聲字가 三聲(上聲)으로 변하지 않은 것.....	30
다) 全濁聲母의 上聲字가 四聲(去聲)으로 변하지 않은 것.....	32
라) 去聲字가 二聲(陽平)이나 一聲(陰平)으로 불규칙하게 변화한 것.....	33
3) 『廣韻』의 入聲字 탈락현상과 聲調變化에 나타난 混同現象.....	35
4) 平聲, 上·去聲과 入聲의 混同現象에 대한 분석.....	37

가) 聲母에 의한 분석.....	39
나) 聲調에 의한 분석.....	40
다) 聲符에 의한 분석.....	42
4. 『廣韻』 多音字의 『中原音韻』 과 現代中國語로의 변화.....	46
1) 常用音이 제시된 音變과 일치되는 것.....	47
2) 常用音이 제시된 音變과 일치되지 않는 것.....	66
가) 常用音を 쉽게 정할 수 있는 것.....	66
나) 常用音を 쉽게 정할 수 없는 것.....	67
 제3장 結論.....	 68
 참고서록.....	 71
 ABSTRACT.....	 73
 부록.....	 78

제1장 緒論

1. 연구 목적

中國語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의 하나이며, 또한 悠久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언어이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수가 얼마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주장이 조금씩 다르다. 18세기에는 1,000여 종의 언어가 있었지만, 1997년에 이르러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는 이미 2,197 종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한다.¹⁾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수는 6,809종이라고 한다.²⁾

그렇게 많은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聲調를 가지고 있는 언어는 드물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中國語는 聲調가 있으며, 그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 어떤 언어든지 사회와 경제의 발전 그리고 역사의 變遷에 따라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中國語도 음운체계뿐만 아니라 聲調까지도 끝없는 변화를 거쳐 왔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같은 시대일지라도 지역이 다르거나,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음운체계와 聲調가 달라진다.

中國語의 音節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한 音節의 發聲인 聲母와 한 音節의 收聲인 韻母³⁾, 그리고 글자의 의미를 구별하기 위하여 생긴 聲調가 그것이다.

본 논문은 中國語의 音節 세 가지 요소 중에서 中國語의 聲調 변화와 관련된 연구이다.

현재까지 중국 음운학에서 고대 시가와 문학 작품의 창작에 기초가 되었던 고대

1) Stephen R. Anderson, linguist in Yale University 『How Many Languages Are There in the World』, 2002, p.2.

2) Lewis, M. Paul (ed.), 2009. 『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 Sixteenth edition. 참조

3) 王力, 『王力文集』, 四卷, 山東教育出版社, 1989年, p.49, 참조.

韻書에 대한 연구는 주로 聲類와 韻類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에 비해, 고대의 성조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聲調는 音義를 구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국음운학의 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將’은 /tɕiɑŋ/으로 읽고, 一聲과 四聲의 두 가지 聲調가 있다. 고대 中國語에서 이미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서, 聲調를 모르면 문장을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一聲으로 읽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1) ‘~을, ~를’이라는 뜻

예문: ① 一舉將之拿下.

한 번에 그것을 해결했다.

② 將反腐敗斗爭進行到底

반부패 투쟁을 끝까지 전개해 나가다.

③ 將門關好.

문을 잘 닫다.

2) 미래에 대한 판단이나, 장차라는 뜻으로 쓰인다.

예문: ① 君將若之何⁴⁾?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

② 日將落.

해가 막 지려고 한다.

4) 左丘明, 『左傳·隱公六年』, 춘추 시대, 인용. 韓信은 秦·漢 시대의 장군.

③ 天將降大任于斯人也.⁵⁾

하늘이 누군가에게 큰일을 시키려면

四聲으로 읽는 경우에는 ‘통솔하다’, ‘이끌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

예문: ① 韓信將兵, 多多益善.⁶⁾

한신이 병사를 통솔함에 있어서, 그 병사의 수가 많을수록 좋다.

② 自將三千人.⁷⁾

혼자 삼천 병사를 통솔한다.

③ 將數百之衆.⁸⁾

몇 백 명의 사람을 통솔한다.

위와 같이 聲調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제대로 구분하려면 聲調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다. 中國語에서 聲調는 단어의 뜻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고 시대의 聲調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聲調는 中國語에서 音義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은 『廣韻』과 『中原音韻』을 중심으로 現代音의 차이와 변화를 비교 연구하였다. 그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平分陰陽’, 『廣韻』에서는 平, 上, 去, 入聲으로 나뉘어 平聲이 둘로 나뉘지 않았으나, 『中原音韻』에서는 平聲이 陰平과 陽平으로 나뉘었다. 그 중에 平聲의 清聲母字는 대체로 陰平에 해당되고, 濁聲母字는 대체로 陽平에 해당된다. 그러나 聲母를 세분화하면 全清, 次清, 次濁, 全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모든 清聲母字는 陰平으로 변하고, 모든 濁聲母字는 陽平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平聲은 陰平和 陽平으로 나뉘는 과정에서 혼동현상이 생겨났다.

5) 『孟子·告子下』, 戰國시대 鄒國사람, 儒家의 代表적인 思想家.

6) 司馬遷, 『史記·淮陰侯列傳』, 漢나라 시대, 인용.

7) 司馬光 『資治通鑑·唐紀』, 北宋시대, 인용.

8) 賈誼, 『過秦論』, 漢나라 시대, 인용.

둘째, ‘濁上變去’, 『廣韻』 중의 上聲字가 濁音의 경우에는 『中原音韻』에서 去聲字로 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聲母가 고대에서 현대까지 변화하는 과정에서 濁音清化 현상이 많아 모든 上聲字가 去聲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上聲과 去聲도 혼동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이 혼동현상이 생긴 원인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入派三聲’, 『廣韻』 중의 入聲字가 『中原音韻』에서는 入聲이 없어지고, 모두 다른 聲調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中原音韻』의 入聲이 사라지고 다른 聲調로 변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법칙이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어떤 규칙에 따라 변했는지 어떤 요소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을 중심으로 『廣韻』과 『中原音韻』을 바탕으로 중고시대부터 현대까지 中國語 聲調의 변화와 그 변화를 일으킨 원인을 찾아보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본고에서는 주로 『廣韻』과 現代中國語의 早期 모습이라고 할 수는 『中原音韻』과의 비교를 통하여 양자간의 音韻體系의 변화와 특히 양자간의 聲調 변화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現代中國語와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中古 시대에서 『中原音韻』을 거쳐 現代中國語에 이르기까지 聲調가 변화하는 과정을 고찰하고 『中原音韻』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하되, 『廣韻』과 『現代漢語大辭典』을 參考로 하여 中古中國語의 聲調變化와 그 規律을 연구하며 대비함으로써, 聲調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문제점을 찾아보고

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먼저 中古 시대의 聲調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곳에서 연구의 주된 자료로는 中古 시대의 韻書와 문헌을 참고로 하였으며, 이는 또한 음운학 연구의 주된 방법이기도 하다.

첫째, 『現代漢語大辭典』에서 『中原音韻』 曲韻 常用字表의 글자들은 일반적으로 모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낸다.

東① [dōng ㄉㄨㄥˊ]

[『廣韻』 德紅切, 平東, 端] 9)

現代中國語의 병음 및 『廣韻』에서 나타난 반절(德紅切), 聲調와 韻(平東), 聲母(端) 등을 표기하였다. 그러나 『廣韻』에서의 음은 『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를 분석해 보면 많은 글자들의 聲調에 변화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대대적으로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는, 平聲이 陰平과 陽平으로 분화되고, 上聲이 上聲과 去聲으로 분화된 것이 있다. 그러나 이런 분화현상은 모두가 완전하게 일치하여 변화된 것이 아니고 꽤 많은 곳에서 혼동되고 있으므로, 『現代漢語大辭典』을 통해서 혼동한 글자들을 찾아내서 분류한다.

둘째, 混同된 글자들의 현상을 분석하고 통계를 내어, 混同現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조사한다.

셋째, 『廣韻』에 기록된 글자들은 『中原音韻』에 기록된 글자들보다 많다. 그 이유 중 하나는 『中原音韻』에서는 曲韻 常用字만 기록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기본적으로 『廣韻』은 常用字나 僻字를 막론하고 당시 사용되는 모든 글자를 수록하여 모든 古今字와 方言字를 두루 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又讀’字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多音字도 기록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多音字가 『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에서 單音字로 변화되었고, 본고에서는 『廣韻』중의 多音字를 분류해서 常用字를 古音과 方音에서 구분한다.

9) ‘東① [dōng ㄉㄨㄥˊ] [『廣韻』 德紅切, 平東, 端]’은 ‘표제자, 성조, [한어병음, 주음부호], [『廣韻』, 『廣韻』의 반절, 聲調와 韻, 聲母]’의 순으로 표기되었다.

넷째, 『中原音韻』 ‘入派三聲’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주로 연구할 대상은 아니지만, 入聲이 기타 聲調로 나뉠 때, 일부에서 混同現象이 발생한 적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특별히 설명해야 하는 것은 多音字 중에서도 이런 현상이 존재하지만, 多音字에서는 不安定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본 연구를 시작하는 동기와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문제를 제기한다.

본론의 제1부분에서는 『廣韻』과 『中原音韻』의 음운과 성조에 대해 요약하였고, 제2부분에서는 주로 聲母, 韻母와 聲調는 서로 간의 관계를 소개하였다. 제3부분에서는 平聲, 上聲과 去聲, 또는 入聲을 대조하고 導出된 결과에 대해 분석하였고, 제4부분에서는 『廣韻』에 나타난 多音字가 『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의 常用音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중점 내용을 요약하고, 聲調 混同現象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제시하였다.

제2장 本論

1. 『廣韻』과 『中原音韻』 음운과 성조

본 논문은 『廣韻』과 『中原音韻』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중국 最初의 韻書는 삼국시대 李登이 편찬한 『聲類』¹⁰⁾와 秦나라 때 呂靜이 편찬한 『韻集』이 있다.

그러나 이 두 권의 책은 일찍이 소실되었다. 육조시대는 韻書가 크게 발전하는 시기로 많은 韻書가 편찬되었다. 陸法言의 『切韻』은 前代 韻書의 계승하면서 정리한 것으로, 후대 전통 韻書 발전의 기초이자 韻書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책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원본은 전해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나 『廣韻』의 앞부분에 陸法言이 지은 『切韻序』 한 편이 남아 있고 唐대의 『唐韻』, 宋대의 『廣韻』 등은 모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切韻』을 기초로 하고 있다.

『廣韻』은 『切韻』에 비해 400여년 늦게 출현하였지만 『廣韻』의 語音系統과 『切韻』이 기본적으로 一致하고, 단지 수록한 글자의 수만 늘어났을 뿐이다. 즉 『切韻』이 모두 11,000여 字를 수록한 반면, 『廣韻』은 모두 26,194字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거의 배 이상 늘어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語音系統은 一致한다고 할 수 있다.

章炳麟은 『國故論衡·音理論』¹¹⁾에서 “『廣韻』중에 포함된 것들은 古今과 여러 지방의 소리이다. 결코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206 가지의 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였고, 또 戴震¹²⁾은 『廣韻』의 分韻이 繁多한 이유로 첫째는 『廣韻』에 古音도 포함시켰고, 둘째는 다른 지역의 方音도 포함시킨 것을 들고 있다.

周德清은 『廣韻』이 江浙之音¹³⁾이라고 하였고, 중국 언어학자 王力도 『切韻』의 語音系統은 方言의 語音系統을 기초로 만든 것이며(洛陽말일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古音 계통도 포함시키는 混合物이라고 했다. 陸法言 등 몇 명은 方言에 대해 실제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고, 方音을 말할 때 명확하지 않게 포괄적으로 말한다¹⁴⁾라

10) 李登은 삼국시대 魏나라의 音韻學家로, 『聲類』 十卷의 작가이다. ‘宮·商·角·徵·羽’ 다섯 가지 음으로 字音을 구분하였으며, 韻部는 그 당시에 나뉘지 않았다. 역사상에 最早의 韻書이며, 현재 이미 소실되었고, 총 11,520자가 수록되었다.

11) 章炳麟, 『章氏叢書·國故論衡』(上), p.18. 인용. 책에서 ‘『廣韻』所包, 兼有古今方國之音, 非并時同地得有聲勢二百六種也.’라고 하였다.

12) 戴震, 『戴氏遺書·聲韻考』, p.7, 참조.

13) 중국 江蘇 浙江 지역의 사투리.

14) 王力, 『王力文集』, 第十二卷. 山東教育出版社, p.86. 원문은 “我的意見是『切韻』的語音系統是以一個方言的語音系統爲基礎(可能是洛陽話), 同時照顧古音系統的混合物. 陸法言等人沒有進行實地的方言調查, 他們談及方音時, 只憑籠統的印象.” * 참고로 陸法言은 隨朝 音韻學家로, 臨漳(今河北臨漳南)사람이다. 仁壽 元年(601年)에는 『切韻』 五卷을 編纂하였다.

고 하였다.

『廣韻』은 『切韻』을 基礎로 작성한 것으로, 古今音과 方言音 등을 상세히 보충하여 『切韻』의 내용을 늘린 것이다. 따라서 周德清이 『中原音韻』에서 『廣韻』중의 많은 글자들을 收錄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常用되는 글자가 아닌 것도 있지만, 『廣韻』중에 수록된 많은 ‘又音’¹⁵⁾이 그 시대의 標準音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方言이나 古音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中原音韻』과 『廣韻』은 중국의 兩大 韻書로 『廣韻』의 경우 그 분류가 상세하고, 수록된 글자가 많은 字書¹⁶⁾로도 알려져 있다. 『中原音韻』은 北曲¹⁷⁾ 등에서 사용한 常用字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활용범위와 영향력은 北曲에 그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중국의 언어학사상 『中原音韻』의 가치는 『廣韻』과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것은 『中原音韻』이 기본적으로 당시의 실제언어의 음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元代의 戲曲을 읽고, 그 뒤에 白話로 쓰여진 小說작품들을 읽어보면, 元代 중국의 표준어가 당시의 소위 ‘中原雅音’ 혹은 ‘中原雅聲’으로 이미 현대 普通話와 아주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으며, 元代 中國語는 흔히 ‘早期官話’라고 칭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早期官話의 語音系統은 현재 적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고증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자료 중에서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은 당시 성행했던 戲曲文學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또 한 때 그 영향이 컸던 것으로, 元代 周德清이 지은 『中原音韻』을 들 수 있다.

『廣韻』중에서는 平, 上, 去, 入聲이 존재하지만, 周德清은 『中原音韻』에서 陰平, 陽平, 上聲, 去聲의 네 가지 聲調로 분류하였고, 入聲은 이미 다른 聲調로 나뉘어 배열하였는데, 이것은 現代普通話의 四聲과 완전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平聲도 陰平和 陽平으로 나뉘어졌다.

15) ‘又音’ 또는 ‘又讀, 又切’이라고 한다. 『廣韻』에는 같은 글자가 두 가지나 혹은 그 이상의 讀音이 있는 경우에 대한 註釋이다.

16) 동한(東漢) 허신(許慎)의 『說文解字』와 같이 형(形)·음(音)·의(義)를 해석한 책.

17) 宋·元 이후 북방의 제궁조(諸宮調)·산곡(散曲)·희곡(戲曲).

『中原音韻』은 최초로 平聲字를 陰·陽 두 개의 聲調로 나눈 韻書인데, 陰·陽이라는 명칭은 周德清이 지은 것이다.

『中原音韻』은 아래와 같이 19개의 韻으로 나뉘었고, 또 韻마다 平聲陰·平聲陽·上聲·去聲으로 나뉘었으며, 入聲은 平陰·平陽·上·去聲으로 분리되었다. 『中原音韻』은 같은 음의 글자들을 같은 組로 묶어 모두 1,586組로 나누었다.

① 東鍾 ② 江陽 ③ 支思 ④ 齊微 ⑤ 魚模 ⑥ 皆來 ⑦ 眞文 ⑧ 寒山 ⑨ 桓歡 ⑩ 先天 ⑪ 蕭豪 ⑫ 歌戈 ⑬ 家麻 ⑭ 車遮 ⑮ 庚青 ⑯ 尤侯 ⑰ 侵尋 ⑱ 監咸 ⑲ 廉纖

엄밀히 말하면 『中原音韻』의 韻과 전통 韻書의 韻은 같다고 할 수 없다. 전통적인 韻書 속에서는 하나의 ‘韻’은 단지 하나의 정해진 聲調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一東’은 ‘平聲’字만, ‘一董’은 ‘上聲’字만, ‘一送’은 ‘去聲’字만, ‘一屋’은 ‘入聲’字만을 나타낸다. 그러나 『中原音韻』에서 ‘東鍾’에서 ‘廉纖’까지 하나의 韻類는 4개 聲調의 글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전통적인 ‘平, 上, 去, 入’이 아니고 ‘平聲陰’, ‘平聲陽’, ‘上聲’, ‘去聲’으로 되어있다. 바꾸어 말하면 전통적인 韻書는 먼저 聲調를 나누고 그 다음 韻類를 나눈 것이나 『中原音韻』은 먼저 韻類를 나누고 그 다음 聲調를 나눈 것이다.

古今の 학자들이 고대 韻書를 연구할 때는, 대부분 聲母와 韻母에 대해 연구하였고, 聲調에 대한 연구는 聲調가 만들어진 시기나 入聲문제에 대해 연구하였을 뿐, 언어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聲調 변화에 대한 문제는 비교적 적게 언급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언어가 변화하는 것은 단지 聲母와 韻母에 局限되지 않고, 聲調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에 착안하여 『廣韻』과 『中原音韻』 그리고 現代中國語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음운학사상 영향력이 비교적 큰 『廣韻』과 普通話의 早期 모습이 라고 할 수 있는 『中原音韻』을 중심으로, 그리고 現代中國語의 聲調를 살펴보고, 中古¹⁸⁾시대의 음에서부터 현대까지의 변천된 聲調와 예외 현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먼저 音節의 三要素인 聲母·韻母·聲調 등의 서로 간의 관

18) 중국 역사의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대에서 당(唐)대까지를 가리킨다.

계와 영향을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2. 聲母, 韻母와 聲調의 상호 관계

聲母, 韻母와 聲調는 서로 影響을 미치면서 변화하였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聲調의 변화는 濁聲母字가 清化되거나 入聲韻尾가 탈락되면서 단독으로 清化되거나 入聲韻尾가 탈락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조와 관련하여 조건이 다르면 서로 다르게 변화되었다. 즉 中國語語音의 변화는 聲母, 韻母 그리고 聲調가 서로 상관관계를 이루며 변화한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이 체계의 어떤 부분에 변화가 생기면 다른 부분도 따라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런 변화로 인하여 모든 음체계에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라 음체계 내부의 조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¹⁹⁾

먼저 이와 같이 聲母, 韻母 그리고 聲調의 변화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²⁰⁾

1) 韻頭 /-i-/와 /-y-/는 主要母音²¹⁾의 發音場所를 앞으로 옮긴다. 그 이유는 /-i-/와 /-y-/가 前母音이기 때문에 主要母音의 發音場所도 앞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즉 主要母音이 /-a-/인 것은 /-e-/로 변화시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廣韻』 중의 麻韻字들이 『中原音韻』에서는 家麻·車遮韻으로 나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麻韻의 ‘車·遮·爺·斜·蛇·爹·嗟·些·奢·者·野·也·捨·惹·扯·寫·卸·謝·舍·社·射·夜·柘·借’ 등과 같은 글자들은 三·四等字들이기 때문에, 韻頭는 /-i

19) 江玉婷, 『試論中國語言學中輕聲與聲調的區別』, 2011年, p.1. 인용.

20) 王力, 『王力文集』, 十七卷, 山東教育出版社, 1989年, p.82~83, 참조.

21) 或者는 母音을 元音이라고도 하고, 子音을 輔音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모두 母音과 子音으로 통일한다.

-/이고, 主要母音은 /-a-/인 것이, 主要母音을 앞으로 옮겨, /-ia-/에서 /-ie-/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2) 聲母가 聲調에 미치는 影響으로는 濁聲母가 聲調에 미치는 影響을 네 가지로 나누어 고찰한다.

첫째, 대표적인 것으로 中古의 濁聲母字가 淸化되면서 平聲字는 모두 送氣音이 되었고, 仄聲字는 모두 不送氣音이 되었다.

둘째, 일부 사람들은 中古中國語의 聲調가 원래부터 陰·陽으로 나뉘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즉 『廣韻』의 反切은 많은 경우 현재 陽調類로 읽히는 글자로 陰調類의 글자들을 反切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東’은 德紅切, ‘此’는 雌氏切, ‘志’는 職吏切, ‘吸’은 許及切이며, 또 현재 陰調類로 읽히는 글자로 陽調類의 글자를 反切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床’은 土庄切, ‘鮑’는 薄巧切, ‘鄭’은 眞正切, ‘莫’은 慕各切이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中古時代의 聲調가 陰과 陽으로 나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中古시대에 동일한 聲調였던 글자가, 왜 후세에는 그 調類가 두 가지로 나뉘어졌는지에 대해 추측해 보면, 원래부터 濁音字의 聲調가 淸音字의 聲調보다 조금 낮지만, 사람들의 귀에는 이런 미세한 차이가 구분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聲調로 인식하게 되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차이가 점점 명확해지자, 언어학자들은 平聲을 두 가지 調類로 나눈 것이라고 추정했을 것이다.

셋째, 全濁 上聲字는 거의 다 去聲字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次濁 聲母字들은 去聲으로 변하지 않았다.

넷째, 周德清에 따르면 元代 『中原音韻』 시대에 入聲이 이미 消滅되어, 『中原音韻』의 入聲字가 陰平·陽平·上·去聲으로 변하였다.

3) 聲調가 聲母에 미치는 影響도 있다.

禪聲母字와 床聲母字의 平聲은 塞擦音 /tʃ‘-/으로 읽히고, 仄聲(고대 中國語 四聲

중의 上, 去, 入聲의 총칭)은 擦音 /ʃ-/으로 읽혔다. 예를 들어 ‘垂’는 /tʃ‘ui/로 읽히지만 ‘睡’는 /ʃui/로 읽히고, ‘蝮’는 /tʃ‘u/로 읽히지만 ‘罽’는 /ʃu/로 읽히며, ‘臣’은 /tʃ‘ən/으로 읽히지만 ‘愼’은 /ʃən/으로 읽히고, ‘純, 唇’은 /tʃ‘un/으로 읽히지만 ‘順’은 /ʃun/으로 읽히며, ‘崇’은 /tʃ‘uŋ/으로 읽히고, ‘成’은 /tʃ‘əŋ/으로 읽히지만, ‘盛’은 /ʃəŋ/으로 읽히고, ‘雛’는 /tʃ‘ou/로 읽히지만, ‘授’는 /ʃou/로 읽히며, ‘枕’은 /tʃ‘ən/으로 읽히지만 ‘甚’은 /ʃən/으로 읽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이미 『中原音韻』 시대에 완성되었다. 예를 들어 『中原音韻』에서 ‘垂’와 ‘鎚’, ‘蝮’와 ‘除’, ‘床’과 ‘幢’, ‘成’과 ‘澄’, ‘雛’와 ‘籌’는 同音이다. 하지만 『中原音韻』 시대에는 이러한 글자들이 捲舌音(/tʃ‘-/ , /ʃ-/)으로 읽히지 않고 오직 /tɕ‘-/ , /ɕ-/로만 읽혔다.

4) 聲調가 韻母에 미치는 影響은 크지 않다.

첫째, 北京語에는 果攝見系の 合口呼²²⁾ 平聲字가 開口呼로 변화였고 仄聲字는 여전히 合口呼로 읽힌다. 예를 들면 ‘戈’는 /kə/로 읽히지만 ‘果, 過’는 /kuo/로 읽히고, ‘科’는 /kə/, ‘和’는 /xə/로 읽히지만 ‘禍, 貨’는 /xuo/로 읽히고, ‘豁’은 平聲이었지만 /xuo/로 읽힌다.

둘째, 北京語에는 ‘灰, 堆’系の 合口呼는 陰·陽平和 去聲에선 /-ui/로 읽히고, 去聲에선 /-ue/로 읽힌다. 예를 들면 ‘誰, 睡’는 /ʃui/로 읽히지만 ‘水’는 /ʃuei/로 읽히고 ‘推, 退’는 /t‘ui/로 읽히지만 ‘腿’는 /t‘uei/로 읽힌다.²³⁾

이와 같이 中國語 音節의 聲母, 韻母, 聲調의 세 가지 요소는 서로 간에 영향을 받는다. 그 중의 하나가 변화하면 다른 요소도 따라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聲調는 聲母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聲調의 音變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아래에서는 먼저 학자들이 연구한 이들 사이의 관계를 표로 제시하고 그들이 제시한 표와 다른 변화를 일으킨 글자만을 골라 기술하였다.

22) 중국음운학에서 主要母音이나 介音이 /-u-/인 자음을 가리킨다.

23) 王力, 『王力文集』, 十七卷, 山東教育出版社, 1989年, p.84, 참조.

3. 『廣韻』, 『中原音韻』 과 現代中國語 간의 聲調 變化

표1 聲調의 變化 對照表²⁴⁾

演變 條件 \ 調	平	上	去	入
清	ˊ	˥	˨	ˊ, 1, ˥, ˨
次濁	1			˨
全濁		˨	1, ˨	

위의 표는 董同龢가 ‘平分陰陽’, ‘濁上歸去’, ‘入派三聲’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聲調 變化를 반영하는 표이다. 이 표는 주로 중고시대에서 現代中國語로 變化하는 聲調의 세 가지 과정이다.

본 논문은 이 표를 근거로 聲調變化的 과정을 알아보고, 이 표와 달리 變化된 것을 중심으로, 『廣韻』, 『中原音韻』 과 現代中國語에 나타난 聲調變化的 예외현상을 연구할 것이다.

먼저 표에 따른 變化와 그 例字를 들어 기술한다.

(1) 平聲字

위의 표를 보면 平聲의 清 聲母字는 現代中國語에서 陰平(ˊ)으로 變했고, 平聲의 次濁과 全濁 聲母字는 現代中國語에서 陽平(1)으로 變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平聲 清 聲母字는 ‘ˊ’(陰平)으로 變함

24) 董同龢, 『中國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2005年, p.235. 인용.

邦 /pɔŋ/→/paŋ/ ㄩ,

三 /sam/→/saŋ/ ㄩ,

偷 /t'u/→/t'ou/ ㄩ,

英 /[?]jeŋ/→/iŋ/ ㄩ

② 濁 聲母字는 ‘ㄱ’(陽平)으로 변함

旁 /b'ɑŋ/→/p'ɑŋ/ 1,

奴 /nuo/→/nu/ 1,

頭 /d'u/→/t'ou/ 1,

尼 /niei/→/ni/ 1,

蠶 /dz'am/→/ts'an/ 1,

良 /ljaŋ/→/liɑŋ/ 1,

紅 /ɣuŋ/→/xuŋ/ 1,

迎 /ŋjeŋ/→/iŋ/ 1,

迷 /miei/→/mi/ 1,

炎 /ɣjæm/→/ian/ 1

(2) 上聲字

上聲의 清 聲母字와 次濁 聲母字는 現代中國語에서 모두 上聲(ㄩ)으로 변했으나 上聲의 全濁 聲母字의 경우는 去聲(ㄩ)으로 변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上聲 清 聲母字와 次濁 聲母字는 ‘ㄩ’(上)으로 변함

貶 /^opjæm/→/pian/ ㄩ,

暖 /^onan/→/nuan/ ㄩ,

請 /^ots'jeŋ/→/te'iŋ/ ㄩ,

眼 /^oŋæŋ/→/ian/ ㄩ,

許 /^oxjo/→/ey/ ㄩ,

冷 /^oleŋ/→/ləŋ/ ㄩ,

隱 /^ojən/→/in/ ㄩ,

友 /^oɣju/→/iou/ ㄩ,

買 /^omæi/→/mai/ ㄩ,

惹 /^oŋja/→/zɣ/ ㄩ

② 全濁 聲母字는 ‘ㄩ’(去)로 변함

倍 /^obuAi/→/pei/ ㄩ,

舅 /^ogju/→/teiou/ ㄩ,

柱 /^od'juo/→/tɕu/ ㄩ,

旱 /^oɣan/→/xan/ ㄩ,

視 /^ozjei/→/ɕi/ ㄩ

(3) 去聲字

去聲의 清·次濁·全濁 聲母字는 모두 去聲(ㄩ)으로 변했다.

① 去聲字는 모두 ‘↓’(去)로 변함

旦 /tan°/→/tan/ ↓,

慢 /man°/→/man/ ↓

但 /d'an°/→/tan/ ↓,

(4) 入聲字

入聲은 現代中國語에서 陰平(ㄱ), 陽平(1), 上聲(ㄴ), 去聲(↓) 등으로 나뉘어 변화되었다. 그 중 入聲의 淸聲母字는 규칙이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次濁聲母字는 모두 去聲(↓)으로 변하였고, 全濁聲母字는 陽平(1)과 去聲(↓)으로 변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淸聲母 入聲字는 ㄱ, 1, ㄴ, ↓, 네 가지 聲調로 나뉘었다.

郭 /kuak/→/kuo/ ㄱ,

尺 /tɕ'jek/→/tɕ'i/ ㄴ,

格 /kɛk/→/kɣ/ 1,

客 /k'ɛk/→/k'ɣ/ ↓

谷 /kuk/→/ku/ㄴ,

蓄 /xjuk/→/ɛy/ ㄱ,

棘 /kjək/→/tɕi/ ↓

脅 /xjɛp/→/ɕie/ 1,

拍 /p'ɛk/→/p'ai/ ㄱ,

血 /xjuɛt/→/ɛye/ ㄴ,

察 /tɕ'æt/→/tɕ'a/ 1,

設 /ɕjæt/→/ɕɣ/ ↓

② 次濁聲母 入聲字는 ‘↓’로 변함(去)

沒 /muɛt/→/mu/ ↓,

若 /ɲjak/→/zuo/ ↓,

納 /nAp/→/na/ ↓,

逆 /ɲjek/→/ni/ ↓,

暱 /ɲjet/→/ni/ ↓,

欲 /juok/→/y/ ↓.

③ 全濁聲母 入聲字는 대체적으로 ‘1’(陽平)으로 변함

雜 /dz'Ap/→/tsa/ 1,

掘 /g'juɛt/→/tɕeye/ 1,

十 /zjɛp/→/ɕi/ 1,

薄 /b'uak/→/pau/ 1,

達 /d'at/→/ta/ 1,

核 /ɣæk/→/xɣ/ 1

④ 全濁聲母字의 일부는 ‘↓’(去)로 변함

鶴 /ɣak/→/xɣ/ ↓,

涉 /zjæp/→/ʃɣ/ ↓,

術 /dz'juet/→/ʃu/ ↓,

『中原音韻』에 기록된 글자들을 표1에 제시된 <聲調變化表>와 대조해본 결과, 대부분의 글자들은 표1의 규칙에 부합되지만, 일부분의 글자가 예외적으로 다른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그 글자들을 찾아 살펴보겠다.

1) 『廣韻』, 『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의 平聲 대조

표1에 따르면 聲調의 변화는 聲母의 淸濁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平聲은 淸聲母 平聲字이면 現代中國語에서는 一聲으로 변했고, 次濁聲母나 全濁聲母 平聲字이면 二聲으로 변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런 변화와 상반된 글자들을 모아서 연구하고자 한다. 즉 淸聲母字와 次濁·全濁聲母字가 대체로 『廣韻』에서 『中原音韻』까지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변화하지만, 그 중의 일부의 글자는 표1의 규칙에 따르지 않으므로, 그 것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제시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기술하는 데에 있어서는 次淸聲母字를 全淸聲母字와 분리하여 따로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런 例外字가 全淸·次淸·次濁·全濁 聲母字의 聲調變化 과정에서 어떤 影響을 받아 混同現象이 생겼는지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中古의 平聲字는 『中原音韻』에서 이미 陰平和 陽平 두 가지 聲調로 나뉘었다. 韻書 중에서 『中原音韻』이 최초로 平聲字를 陰·陽의 두 聲調로 나눈 韻書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쓰고 있는 陰·陽이라는 名稱은 바로 『中原音韻』의 저자인 周德清이 만든 것이다. 이것은 명확히 그 시대에 이미 ‘平分陰陽(平聲은 陰, 陽으로 나눈다)’ 현상이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러한 ‘平分陰陽’의 현상은 聲母의 清濁을 條件으로 생긴 것이다.

中古시대의 모든 清聲母의 平聲字들은 現代中國語에서 대부분 陰平(一聲)으로 읽는다. 예를 들면 ‘公’은 中古시대에 聲母가 /k-/이고 現代에 /koŋ/ 一聲으로 읽히고, ‘多’는 中古시대에 聲母가 /t-/이고 現代에 /tuo/ 一聲으로 읽힌다.

中古시대의 모든 次濁 聲母와 全濁 聲母의 平聲字들은 現代에 陽平(二聲)으로 읽힌다. 예를 들면 ‘明’의 中古 聲母는 /m-/이고, 現代에는 /miŋ/ 二聲으로 읽힌다. ‘駝’는 中古 聲母는 /t-/이고, 現代에는 /t‘uo/ 二聲으로 읽힌다. 이런 變化는 표1과 대체로 비슷하지만 본 연구자가 『廣韻』, 『中原音韻』, 『現代漢語大辭典』 등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규칙을 따르지 않은 글자들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것만을 골라 분류하여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을 정리하고, 아울러 그 원인도 밝히고자 한다.

본고의 뒷부분에 ‘1-2-2-1’, ‘1-2-1-1’, ‘1-1-1-2’, ‘1-1-2-2’, ‘4-4-4-3’ ‘4-4-3-3’, ‘3-3-4-4’, ‘3-3-3-4’, ‘3-4-3-3’, ‘3-4-4-3’, ‘4-4-4-2’, ‘4-4-4-1’ 등과 ‘5-4-4-2’ 등의 표기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표기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1-2-1-1’에서 첫 번째 ‘1’은 『廣韻』의 聲調를 의미하는 것으로 ‘1’은 平聲을, ‘3’은 上聲을, ‘4’는 去聲을, ‘5’는 入聲을 나타내며, 두 번째 ‘2’는 董同龢의 표1에서 추정된 聲調이고, 세 번째 ‘1’은 『中原音韻』의 聲調이며, 네 번째 ‘1’은 現代中國語의 聲調이다.

이런 표기방법은 설명한 바와 같이 聲調를 시대별로 나타내는 것이며, 아래에서는 숫자의 순서대로 표를 만들었다.

표2 시대별 聲調 對照表

聲調 시대별	1	2	3	4	5
『廣韻』	平聲		上聲	去聲	入聲
董同龢聲調理 論	陰平	陽平	上聲	去聲	入聲
『中原音韻』	陰平	陽平	上聲	去聲	入聲
現代中國語	一聲	二聲	三聲	四聲	

『廣韻』, 『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의 平聲 대조에서는 본 논문의 기술방식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화되었다면 ‘1-2-2-2’에 해당되어야 하겠지만, ‘1-2-1-1’ 혹은 ‘1-2-2-1’ 등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변화된 글자들과, ‘1-1-1-1’에 해당되어야 하겠지만, ‘1-1-1-2’ 혹은 ‘1-1-2-2’ 등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변화된 글자들을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1에서와 같이 平聲字는 次濁聲母字나 全濁聲母字일 때는 二聲으로 변화되어야 하지만 이 규칙과 어긋나게 여전히 一聲을 유지하고 있는 글자들은 아래와 같이 ‘1-2-1-1’과 ‘1-2-2-1’로 나누어 기술한다.

가) 次濁·全濁聲母의 平聲字가 二聲(陽平)으로 변하지 않은 것

(1) 1-2-2-1

齊微

微① [wēi×ㄨ]

[『廣韻』無非切, 平微, 微.] 1-2-2-1

薇① [wēi×ㄨ]

[『廣韻』無非切, 平微, 微.] 1-2-2-1

[『廣韻』武悲切, 平脂, 明.] 1-2-2-1

魚摸

巫① [wūㄨㄨ]

[『廣韻』武夫切，平虞，微.] 1-2-2-1

誣① [wūㄨㄨ]

[『廣韻』武夫切，平虞，微.] 1-2-2-1

齊微

摧① [cuīㄘㄨㄟ]

[『廣韻』昨回切，平灰，從.] 1-2-2-1

江陽

戕① [qiāngㄑㄩㄤ]

[『廣韻』在良切，平陽，從.] 1-2-2-1

魚摸

殊① [shūㄕㄨ]

[『廣韻』市朱切，平虞，禪.] 1-2-2-1

茱① [zhūㄓㄨ]

[『廣韻』市朱切，平虞，禪.] 1-2-2-1

洙① [zhūㄓㄨ]

[『廣韻』市朱切，平虞，禪.] 1-2-2-1

銖① [zhūㄓㄨ]

[『廣韻』市朱切，平虞，禪.] 1-2-2-1

東鍾

鱗① [yōngㄩㄨㄥ]

[『廣韻』餘封切，平鍾，以.] 1-2-2-1

[『廣韻』蜀庸切，平鍾，禪.] 1-2-2-1

慵① [yōngㄩㄨㄥ]

[『廣韻』蜀庸切，平鍾，禪.] 1-2-2-1

傭① [yōngㄩㄥㄨㄥˋ]

[『廣韻』餘封切，平鍾，以。] 1-2-2-1

② [chōngㄔㄨㄥㄨㄥˋ]

[『廣韻』丑凶切，平鍾，徹。]

鏞① [yōngㄩㄥㄨㄥˋ]

[『廣韻』餘封切，平鍾，以。] 1-2-2-1

壟① [yōngㄩㄥㄨㄥˋ]

[『廣韻』餘封切，平鍾，以。] 1-2-2-1

庸① [yōngㄩㄥㄨㄥˋ]

[『廣韻』餘封切，平鍾，以。] 1-2-2-1

尤候

悠① [yōuㄩㄠㄨㄠˋ]

[『廣韻』以周切，平尤，以。] 1-2-2-1

齊微

危① [wēiㄨㄟㄨㄟˋ]

[『廣韻』魚爲切，平支，疑。] 1-2-2-1

期① [qīㄑㄧㄨㄥˊ]

[『廣韻』渠之切，平之，群。] 1-2-2-1

② [jīㄐㄧㄨㄥˊ]

[『廣韻』居之切，平之，見。]

魚模

乎① [hūㄏㄨㄨㄨˋ]

[『廣韻』戶吳切，平模，匣。] 1-2-2-1

庚青

莖① [jīngㄐㄩㄥㄨㄥˋ]

[『廣韻』 戶耕切, 平耕, 匣.] 1-2-2-1

위에 나열된 글자들은 모두 平聲의 次濁聲母字나 全濁聲母字이므로 표1에 따라 陽平으로 변하였고, 『中原音韻』에서도 陽平에 배열되었지만, 『現代漢語大辭典』에서는 一聲으로 읽힌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글자들은 『中原音韻』 이후 성조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東鍾韻의 慵, 鱗, 備, 鏞, 墉, 庸과 같은 글자들은 동일한 聲符²⁵⁾를 갖고 있어서 發音도 같으며, 언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이뿐만 아니라 『中原音韻』에서는 적지 않은 글자들이 이런 現象을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면 微와 薇, 巫와 誣, 殊·荼·洙·銖 등이 그것이다.

(2) 1-2-1-1

東鍾

沖① [chōng 彳×ㄥ]

[『廣韻』 直弓切, 平東, 澄.] 1-2-1-1

松① [sōng ㄥ×ㄥ]

[『廣韻』 祥容切, 平鐘, 邪.] 1-2-1-1

缸① [gāng ㄍㄨㄥ]

[『廣韻』 下江切, 平江, 匣.] 1-2-1-1

[『中原音韻』 音岡, 平江, 陽.]

齊微

邳① [pī ㄆㄧ]

[『廣韻』 符悲切, 平脂, 并.] 1-2-1-1

崔① [cuī ㄘㄨㄟ]

[『廣韻』 倉回切, 平灰, 清.]

25) 竺家寧, 『聲韻學』, 國立編譯館主編, 18頁. 참고로 漢字의 90% 이상은 形聲字인데, 形聲字는 聲符와 義符 등 두 부분으로 나뉘며, 이 중 聲符는 注音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廣韻』昨回切, 平灰, 從.] 1-2-1-1

監咸

酣① [hān ㄏㄢ ㄩㄢ]

[『廣韻』胡甘切, 平談, 匣.] 1-2-1-1

위에 나열된 글자들은 모두 平聲의 次濁聲母字나 全濁聲母字이므로 표1에 따라, 陽平으로 변하여야 하지만, 『中原音韻』에서는 陰平에 나열되었고, 『現代漢語大辭典』에서도 一聲으로 읽힌다. 따라서 『中原音韻』에서 이미 예외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齊微韻에 나열된 崔와 摧를 살펴보면, 두 글자는 동일한 聲符를 취하는 글자로, 『廣韻』에서는 동일한 反切(昨回切, 從母, 平音)을 사용하여 同音이었지만, 아래에서와 같이 『中原音韻』에서는 각각 달라져, 崔는 『中原音韻』에서 陰平에 배열되었고, 摧는 『中原音韻』에서 陽平에 배열되었다.

崔① [cuī ㄘㄨㄟ ㄩㄟ]

[『廣韻』倉回切, 平灰, 清.]

[『廣韻』昨回切, 平灰, 從.] 1-2-1-1

摧① [cuī ㄘㄨㄟ ㄩㄟ]

[『廣韻』昨回切, 平灰, 從.] 1-2-2-1

위의 ‘1-2-1-1’에 나열한 글자들은 『廣韻』에서 『中原音韻』으로 변화되면서 차이가 생긴 것이고, ‘1-2-2-1’에 나열된 글자들은 『中原音韻』에서 現代中國語로 변화되면서 발생한 차이라고 할 것이다.

나) 淸聲母의 平聲字가 一聲(陰平)으로 변하지 않은 것

(1) 1-1-1-2

표1에 따라 平聲字가 淸聲母字일 때는 一聲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 규칙과 어긋나게 二聲으로 변한 글들은 ‘1-1-1-2’와 ‘1-1-2-2’로 나누어 기술하겠다.

江陽

妨① [fāng ㄈㄤ ㄩㄤ]

[『廣韻』敷方切, 平陽, 敷.] 1-1-1-2

[『廣韻』敷亮切, 去漾, 敷.]

皆來

郤① [tái去ㄉˊ]

[『廣韻』土來切, 平哈, 透.] 1-1-1-2

魚摸

孚① [fúㄈㄨˊ]

[『廣韻』芳無切, 平虞, 敷.] 1-1-1-2

② [fūㄈㄨˊ]

[『廣韻』芳無切, 平虞, 敷.]

苧① [fúㄈㄨˊ]

[『廣韻』芳無切, 平虞, 敷.] 1-1-1-2

② [piǎoㄆㄧㄠˇ]

[『廣韻』平表切, 上小, 并.]

桴① [fúㄈㄨˊ]

[『廣韻』縛謀切, 平尤, 奉.]

[『廣韻』芳無切, 平虞, 敷.] 1-1-1-2

支思

雌① [cíㄘㄧˊ]

[『廣韻』此移切, 平支, 清.] 1-1-1-2

先天

詮① [quánㄑㄨㄢˊ]

[『廣韻』此緣切, 平仙, 清.] 1-1-1-2

荃① [quánㄑㄨㄢˊ]

[『廣韻』此緣切, 平仙, 清.] 1-1-1-2

東鍾

穹① [qióng ㄑㄩㄥˊ]

[『廣韻』去宮切, 平東, 溪.] 1-1-1-2

眞文

詢① [xún ㄒㄩㄣˊ]

[『廣韻』相倫切, 平諄, 心.] 1-1-1-2

蕭豪

鑿① [áo ㄠˊ]

[『廣韻』於刀切, 平豪, 影.] 1-1-1-2

庚青

縈① [yíng ㄩㄥˊ]

[『廣韻』於營切, 平清, 影.] 1-1-1-2

泓① [hóng ㄏㄨㄥˊ]

[『廣韻』烏宏切, 平耕, 影.] 1-1-1-2

위에 나열된 글자들은 모두 平聲으로 淸聲母字이므로 표1에 따라 一聲으로 변했고, 『中原音韻』에서도 陰平에 나열되었으나, 『現代漢語大辭典』에서는 二聲으로 읽히고 있다. 즉 위의 글자들은 『中原音韻』 이후에 생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桴·桴·孚와 詮·荃 등의 글자들은 동일한 聲符의 글자로 『廣韻』에서의 발음도 같으나, 『中原音韻』 이후 발음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1-1-2-2

尤候

惆① [chóu ㄔㄡˊ]

[『廣韻』丑鳩切, 平尤, 徹.] 1-1-2-2

‘1-1-2-2’ 경우는 오직 ‘惆’ 한 글자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은 『中原音韻』 전에 변한 것이다.

‘1-1-2-2’에 나열된 글자들은 『廣韻』에서 『中原音韻』으로 변화하면서 발생한 차이이고, ‘1-1-1-2’는 『中原音韻』에서 現代中國語로 변화하면서 발생한 차이이다.

2) 『廣韻』, 『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의 上·去聲 대조

中古시대의 上聲字 중에서 모든 全濁聲母字들은 現代中國語에서는 모두 去聲으로 변화하였다. 예를 들면 ‘杜’는 中古시대에 上聲字이지만 ‘杜’의 聲母가 濁音인 /t-/이므로 現代中國語에서는 去聲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賭’는 聲母가 清音인 /t-/라서 現代中國語에서도 여전히 上聲으로 읽힌다.

이러한 현상은 표1과 일치하지만, 본인이 『廣韻』, 『中原音韻』, 『現代漢語大辭典』 등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의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글자들도 상당히 많았다.

아래에서는 그것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표1에 따라 去聲字가 清·次濁·全濁聲母字일 때는 여전히 去聲으로 읽히지만, 이러한 규칙과는 달리 上聲으로 변화한 글자들이 있다.

둘째, 표1에 따라 上聲字가 清·次濁聲母字일 때는 여전히 上聲으로 읽히지만, 이러한 규칙과는 달리 去聲으로 변화한 글자들이 있다.

셋째, 표1에 따라 上聲字가 全濁聲母字일 때는 去聲으로 변해야 하지만, 이러한 규칙과 달리 여전히 上聲으로 읽히는 글자들이 있다.

넷째, 표1에 따라 去聲字가 清·次濁·全濁聲母字일 때는 여전히 去聲으로 읽히지만, 이러한 규칙과는 달리 陽平聲이나 陰平聲으로 변한 글자들이 있다.

위의 분류에 따라 아래에서는 순서대로 기술한다.

즉 『廣韻』, 『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의 上·去聲 대조에서는 본 논문의 기술방식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화되었다면 ‘4-4-4-4’에 해당되어야 하겠지만, ‘4-4-4-3’과 ‘4-4-3-3’ 등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변화된 글자들, 정상적으로 변화되었다면

‘3-3-3-3’에 해당되어야 하겠지만, ‘3-3-4-4’와 ‘3-3-3-4’ 등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변화된 글자들 정상적으로 변화되었다면 ‘3-4-4-4’에 해당되어야 하겠지만, ‘3-4-3-3’과 ‘3-4-4-3’ 등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변화된 글자들, 정상적으로 변화되었다면 ‘4-4-4-4’에 해당되어야 하겠지만, ‘4-4-4-2’와 ‘4-4-4-1’ 등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변화된 글자들을 예를 들어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去聲字가 上聲과 去聲의 불규칙하게 변화한 것

표1에 따라 去聲字가 淸·次濁·全濁聲母字일 때는 여전히 去聲으로 읽히지만, 이러한 규칙과는 달리 上聲으로 변화한 글자들이 있다.

아래에서는 ‘4-4-4-3’과 ‘4-4-3-3’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1) 4-4-4-3

東鍾

諷① [fěngㄈㄥˇ]

[『廣韻』方鳳切, 去送, 非.] 4-4-4-3

江陽

訪① [fǎngㄈㄤˇ]

[『廣韻』敷亮切, 去漾, 敷.] 4-4-4-3

魚摸

屢① [lǚㄌㄨˇ]

[『廣韻』良遇切, 去遇, 來.] 4-4-4-3

曙① [shǔㄕㄨˇ]

[『廣韻』常恕切, 去御, 禪.] 4-4-4-3

娶① [qǔㄑㄨˇ]

[『廣韻』七句切, 去遇, 淸.] 4-4-4-3

哺① [bǔㄅㄨˇ]

[『廣韻』薄故切, 去暮, 并.] 4-4-4-3

恒歡

惋① [wǎnㄨㄢˇ]

[『廣韻』烏貫切, 去換, 影.] 4-4-4-3

先天

譴① [qiǎnㄑㄩㄢˇ]

[『廣韻』去戰切, 去線, 溪.] 4-4-4-3

蕭豪

道① [dàoㄉㄠˋ]

[『廣韻』徒皓切, 上皓, 定.]

② [dǎoㄉㄠˇ]

[『集韻』大到切, 去號, 定.] 4-4-4-3

導① [dǎoㄉㄠˇ]

[『廣韻』徒到切, 去號, 定.] 4-4-4-3

蹈① [dǎoㄉㄠˇ]

[『廣韻』徒到切, 去號, 定.] 4-4-4-3

監咸

纜① [lǎnㄌㄢˇ]

[『廣韻』盧瞰切, 去闕, 來.] 4-4-4-3

위에 나열된 글자들은 모두 去聲으로 淸·次濁·全濁聲母字이므로, 표1에 따라 四聲으로 변했고, 『中原音韻』에서도 去聲에 배열되었지만, 『現代漢語大辭典』에서는 三聲으로 읽힌다. 즉 『中原音韻』 이후에 발음에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道와 導는 聲符가 同一하지만 『廣韻』에서부터 발음이 다르다.

(2) 4-4-3-3

東鍾

統① [tǒngㄊㄨㄥˇ]

[『廣韻』他綜切, 去宋, 透.] 4-4-3-3

支思

餌① [ěrlǚ]

[『廣韻』仍吏切, 去志, 日.] 4-4-3-3

魚摸

忤① [wǔxǚ]

[『廣韻』五故切, 去暮, 疑.] 4-4-3-3

皆來

蒯① [kuǎi xiǚ]

[『廣韻』苦怪切, 去怪, 溪.] 4-4-3-3

眞文

瑾① [jǐn xiǚ]

[『廣韻』渠遴切, 去震, 群.] 4-4-3-3

위에 나열된 글자들은 모두 去聲으로 淸·次濁·全濁聲母字이므로, 표1에 따라 四聲으로 변하였고, 『中原音韻』에서도 上聲에 배열되었지만, 『現代漢語大辭典』에서는 三聲으로 읽힌다. 즉 『中原音韻』 전부터 발음에 변화가 생긴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의 글자들에서 ‘4-4-3-3’에 나열된 글자들은 『廣韻』에서 『中原音韻』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 것이고, ‘4-4-4-3’에 나열된 글자들은 『中原音韻』에서 現代中國語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 것이다.

나) 淸·次濁聲母의 上聲字가 三聲(上聲)으로 변하지 않은 것

표1에 따라 上聲字가 淸·次濁聲母字일 때는 여전히 上聲으로 읽히지만, 이러한 규칙과는 달리 去聲으로 변화한 글자들이 있다.

아래에서는 ‘3-3-4-4’와 ‘3-3-3-4’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1) 3-3-4-4

江陽

漾① [yàng xiǚ]

[『集韻』以兩切, 上養, 以.] 3-3-4-4

魚摸

貯① [zhù 虫 ㄨˋ]

[『廣韻』 丁呂切, 上語, 知.] 3-3-4-4

眞文

憚① [yùn 口 ㄩˋ]

[『廣韻』 於粉切, 上吻, 影.] 3-3-4-4

恒歡

算① [suàn 厶 ㄨㄢˋ]

[『廣韻』 蘇管切, 上緩, 心.] 3-3-4-4

위에 나열된 글자들은 모두 上聲으로 淸·次濁聲母字이므로 표1에 따라 여전히 三聲으로 읽혀야 하지만, 『中原音韻』에서는 去聲에 배열되었고, 『現代漢語大辭典』에서도 四聲으로 읽힌다. 즉 『中原音韻』 전부터 발음에 변화가 생긴 것임을 알 수 있다.

(2) 3-3-3-4

庚青

境① [jìng ㄐㄩˋ ㄥˋ]

[『廣韻』 居影切, 上梗, 見.] 3-3-3-4

礦① [kuàng ㄎㄨㄢˋ ㄨㄥˋ]

[『廣韻』 古猛切, 上梗, 見.] 3-3-3-4

尤候

垢① [gòu ㄍㄡˋ ㄨˋ]

[『廣韻』 古厚切, 上厚, 見.] 3-3-3-4

誘① [yòu ㄩˋ ㄨˋ]

[『廣韻』 與久切, 上有, 以.] 3-3-3-4

監鹹

黯① [àn ㄢˋ]

[『廣韻』乙減切, 上賺, 影.] 3-3-3-4

[『廣韻』乙咸切, 平咸, 影.]

위에 나열된 글자들은 上聲으로 淸·次濁聲母字이므로, 표1에 따라 여전히 三聲으로 읽혀야 하고, 『中原音韻』에서도 上聲에 배열되었지만, 『現代漢語大辭典』에서는 四聲으로 읽힌다. 즉 『中原音韻』 이후 발음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위의 글자들에서 ‘3-3-4-4’에 나열된 글자들은 『廣韻』에서 『中原音韻』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 것이고, ‘3-3-3-4’에 나열된 글자들은 『中原音韻』에서 現代中國語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 것이다.

다) 全濁聲母의 上聲字가 四聲(去聲)으로 변하지 않은 것

표1에 따라 上聲字가 全濁聲母字일 때는 去聲으로 변해야 하지만, 이러한 규칙과 달리 여전히 上聲으로 읽히는 글자들이 있다.

아래에서는 ‘3-4-3-3’과 ‘3-4-4-3’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1) 3-4-3-3

寒山

袒① [tǎnㄊㄢˇ]

[『廣韻』徒旱切, 上旱, 定.] 3-4-3-3

先天

殄① [tiǎnㄊㄧㄢˇ]

[『廣韻』徒典切, 上銑, 定.] 3-4-3-3

庚青

艇① [tǐngㄊㄩㄥˇ]

[『廣韻』徒鼎切, 上迥, 定.] 3-4-3-3

皆來

拐① [guǎiㄍㄨㄞˇ]

[『廣韻』求蟹切, 上蟹, 群.] 3-4-3-3

東鍾

汞① [gǒng ㄍㄨㄥˇ]

[『廣韻』胡孔切, 上董, 匣.] 3-4-3-3

위에 나열된 글자들은 모두 上聲으로 全濁聲母字이므로, 표1에 따라 四聲으로 변해야 하지만, 『中原音韻』에서는 上聲에 배열되었고, 『現代漢語大辭典』에서도 三聲으로 읽힌다. 즉 표1의 규칙과는 일치되지 않는다.

(2) 3-4-4-3

魚摸

釜① [fǔ ㄈㄨˇ]

[『廣韻』扶雨切, 上麌, 奉.] 3-4-4-3

輔① [fǔ ㄈㄨˇ]

[『廣韻』扶雨切, 上麌, 奉.] 3-4-4-3

江陽

晃① [huǎng ㄏㄨㄤˇ]

[『廣韻』胡廣切, 上蕩, 匣.] 3-4-4-3

幌① [huǎng ㄏㄨㄤˇ]

[『廣韻』胡廣切, 上蕩, 匣.] 3-4-4-3

恒歡

緩① [huǎn ㄏㄨㄢˇ]

[『廣韻』胡管切, 上緩, 匣.] 3-4-4-3

위에 나열된 글자들은 모두 上聲으로 全濁聲母字이므로, 표1에 따라 四聲으로 변해야 하고, 『中原音韻』에서도 去聲에 배열되었으나, 『現代漢語大辭典』에서는 三聲으로 읽힌다. 즉 『中原音韻』 이후 발음에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글자들에서 ‘3-4-3-3’에 나열된 글자들은 『廣韻』에서 『中原音韻』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 것이고, ‘3-4-4-3’에 나열된 글자들은 『中原音韻』에서 現代中國語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 것이다.

라) 去聲字가 二聲(陽平)이나 一聲(陰平)의 불규칙하게 변화한 것

표1에 따라 去聲字가 淸·次濁·全濁聲母字일 때는 여전히 去聲으로 읽히지만, 이러한 규칙과는 달리 陽平聲이나 陰平聲으로 변한 글자들이 있다.

아래에서는 ‘4-4-4-2’와 ‘4-4-4-1’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1) 4-4-4-2

魚摸

孺① [rúㄣˊ]

[『廣韻』而遇切, 去遇, 日.] 4-4-4-2

恒歡

玩① [wánㄨㄢˊ]

[『廣韻』五換切, 去換, 疑.] 4-4-4-2

蕭豪

療① [liáoㄌㄧㄠˊ]

[『廣韻』力照切, 去笑, 來.] 4-4-4-2

歌戈

邏① [luóㄌㄨㄛˊ]

[『廣韻』郎佐切, 去箇, 來.] 4-4-4-2

위에 나열된 글자들은 去聲으로 淸·次濁·全濁聲母字이므로, 표1에 따라 여전히 四聲으로 읽혀야 하지만, 이러한 규칙과 달리 二聲으로 변화한 글자들이다.

(2) 4-4-4-1

蕭豪

糙① [cāoㄘㄠ]

[『廣韻』七到切, 去號, 淸.] 4-4-4-1

尤候

究① [jiū ㄐㄩ ㄨ ㄩˋ]

[『廣韻』居祐切, 去宥, 見.] 4-4-4-1

齊微

萎① [wěi ㄨ ㄟ ㄩˇ]

[『廣韻』於爲切, 平支, 影.] 1-1-2-3

儲① [chǔ ㄔ ㄩˇ ㄨ ㄩˋ]

[『廣韻』直魚切, 平魚, 澄.] 1-2-2-3

[『廣韻』公戶切, 上姥, 見.]

眞文

紉① [rèn ㄨ ㄣˊ ㄩ ㄩˋ]

[『廣韻』女隣切, 平眞, 娘.] 1-2-2-4

家麻

媽① [mā ㄇ ㄚ ㄩ ㄩˋ]

[『廣韻』莫補切, 上姥, 明.] 3-4-3-1

위에 나열된 글자들은 去聲으로 淸·次濁·全濁聲母字이므로, 표1에 따라 여전히 四聲으로 읽혀야 하지만, 이러한 규칙과 달리 一聲으로 변화한 글자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글자들은 표1의 聲調변화에 어긋난 글자들인데, 그 이유로 言語環境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렇게 言語環境의 차이에 의해 音이 다르게 변하는 것을 條件音變이라고 하는데, 中國語에서는 같은 종류의 聲母, 韻母, 聲調들이 다른 言語環境에서 서로 다른 聲母, 韻母, 聲調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²⁶⁾

3) 『廣韻』의 入聲字 탈락현상과 聲調變化에 나타난 混同現象

入聲은 비록 陰·陽平聲字나 上·去聲字와 같이 많은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廣韻』에서는 入聲字였던 것이 『中原音韻』 등과 같은 北音系韻書에서는 모든

26) 王力, 『漢語語音史上的條件音變』, 『語言研究』1983年01期, 참조.

入聲韻尾가 탈락되어 각각의 聲調로 나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예외인 경우를 찾아 분류 정리하고자 한다.

王力이 따르면 入聲이 약화되거나 없어진 것은 宋 나라 시대부터 이미 시작되었다.²⁷⁾ 『廣韻』에서는 존재하던 入聲字가 『中原音韻』을 거쳐 現代中國語에 이르는 北音系統에서는 이미 탈락되었다.

사실 周德清은 『中原音韻·自序』에서 ‘夫聲分平仄者，謂無入聲，以入聲派入平·上·去三聲也’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지만, 『中原音韻』의 ‘入派三聲’에 관하여, 楊耐思·陸志韋 등은 『中原音韻』에는 여전히 入聲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²⁸⁾.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周德清이 말한 대로 『中原音韻』에서 이미 入聲이 사라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연구하였다.

『廣韻』에서 入聲에 배열된 글자가 『中原音韻』을 거쳐 現代中國語에 이르면서 入聲이 탈락하였지만, 대체로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다. 그것을 찾아, 다른 것과 달리 혼동되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한다.

語音의 변화는 聲母나 韻母 그리고 聲調가 각각 홀로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한다. 예를 들어 平聲字가 清聲母일 때는 一聲으로 변하고, 濁聲母일 때는 二聲으로 변하며, 全濁聲母字가 清化되면서 平聲字는 送氣音으로 仄聲字는 不送氣音으로 변한다.

과거 위와 같이 개략적인 연구는 하였지만, 서로 간의 세밀한 條件을 연구한 것은 별로 없었다. 나아가서 연구된 조건에 어긋나게 변화하는 글자들을 정리하여 그 이유를 밝힌 것은 더더욱 없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中古의 平聲字가 陰·陽平聲으로 나뉠 때의 例外와 全濁上聲字가 去聲으로 변할 때의 例外를 기술하였다.

아래에서는 입성의 변화를 밝히고, 그러한 예에 어긋나는 글자가 있으면 그것들을 찾아 그것들이 예외가 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中古音에서 入聲에 배열된 글자들은 『中原音韻』을 거쳐 現代中國語에 이르는 北

27) 王力, 『王力文集』, 第十二卷, 山東教育出版社, p.102. 인용. “實際上, 入聲的趨于消失, 從宋代已經開始了.”

28) 楊耐思, 『中原音韻音系』,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年, p.46. 참조.

音系韻書에서는 入聲이 탈락되면서 아래와 같은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다.

清入聲→陰平·陽平·上聲·去聲

全濁入→陽平

次濁入→去聲

아래의 글자들은 위의 규칙에 어긋나는 예외에 속하는 글자들이다.

額① [éㄛˊ]

[『廣韻』五陌切, 入陌, 疑.] 5-4-4-2

脫① [tuōㄊㄨㄛˊ]

[『廣韻』徒活切, 入末, 定.] 5-2-3-1 혹은 5-4-3-1

[『廣韻』他括切, 入末, 透.]

捏① [niēㄋㄧㄝˊ]

[『廣韻』奴結切, 入屑, 泥.] 5-4-4-1

위에서 특히 ‘脫’은 透母로 次清聲母字이므로 一·二·三·四聲 어느 것으로나 변할 수 있으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나머지 규칙에 따라 변화하지 않은 글자들도 몇 글자 보이지 않고 정해진 규칙도 없어 보인다.

4) 平聲, 上·去聲과 入聲의 混同現象에 대한 분석

『中原音韻』에 수록되어 있는 글자 중에서 聲調가 混同되는 單音字들을 골라 논의하였다. 논의된 글자는 모두 80여 글자로, 비록 숫자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연구할 가치가 있다.

물론 多音字 중에도 이런 현상이 존재하지만, 多音字 중에는 不安定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聲調의 변화는 聲母와 가장 관계가 깊다고 할 것이므로, 우선 『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의 聲母의 변화 추세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표3 中古音과 現代中國語의 聲母 對照表²⁹⁾

		全清	次清	全濁		次濁	全清 (擦)	全濁(擦)	
				平	仄			平	仄
重	脣	幫 p	滂 p'	並 p'	明 m				
輕	脣	非 f	敷 f	奉 f	微 Ø(u)				
舌頭 (娘併入,來附)		端 t	透 t'	定 t'	泥(娘)n 來l				
舌上	梗入二等讀音	ts	ts'		ts				
	其他	tsɿ	ts'ɿ	ts'ɿ	tsɿ				
齒頭	洪音	ts	ts'	ts'	ts	s	ts',s	s	
	精細音	tɕ	tɕ'	tɕ'	tɕ	ɕ	邪 ɕ',ɕ	ɕ	
正齒附半齒	莊系	ts	ts'	崇	ts	s	俟		
	章系	tsɿ	ts'ɿ	崇	tsɿ,ɿ	ɿ	禪 ts',ɿ	ɿ	
牙曉匣移此	開口	k	k'	群	k	Ø	x	x	
	合口	tc	tc'	群	tc	n,Ø(i)	ɕ	匣 ɕ	
喉	開口	見 tc	溪 tc'	群	疑 Ø(i)	曉 ɕ	匣 ɕ		
	合口	k	k'	群	Ø(u)	x	x		
	細音	tc	tc'	群	Ø(y)	ɕ	ɕ		
	細音	Ø			Ø(i)				
合口	影Ø(u)			云,以 Ø(u)					
合口	Ø(y)			Ø(y)					

29) 董同龢, 『中國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2005年, pp.211~212. 인용.

위의 표3은 중고 시대부터 현대까지 성모의 변화와 세분화의 추세를 반영했다. 聲母의 清濁이 聲調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의 표를 보면 聲母의 清濁을 알 수 있다.

가) 聲母에 의한 분석

먼저 앞에서 논의한 글자들을 聲母別로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3에 따라 全清聲母字는 모두 13字이고, 次清聲母字는 8字이며, 次濁聲母字는 8字, 全濁聲母字는 12字로 모두 41字이다.

이 중 音變³⁰⁾이 발생한 聲母와 그 숫자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全清: 非(諷, 1字), 知(貯, 1字), 見(境, 礦, 垢, 究, 4字), 影(塵, 縈, 泓, 恍, 憚, 萎, 黯, 7字), 心(算, 詢, 2字)

次清: 敷(孚, 葦, 桴, 訪, 妨, 5字), 透(郤, 統, 2字), 徹(惆, 1字), 清(雌, 詮, 荃, 娶, 糙, 5字), 溪(穹, 譴, 刪, 3字)

次濁: 明(薇, 媽, 2字), 微(微, 薇, 巫, 誣, 4字), 娘(紉, 捏, 2字), 來(屢, 纜, 療, 邏, 4字), 日(餌, 孺, 2字), 疑(危, 忤, 玩, 額, 4字), 以(鱸, 傭, 鋪, 埔, 庸, 悠, 漾, 誘, 8字),

全濁: 邪(松, 1字), 禪(殊, 茱, 洙, 銖, 鱸, 慵, 曙, 7字), 匣(莖, 缸, 酣, 禾, 晃, 幌, 緩, 7字), 從(摧, 戕, 崔, 3字), 群(期, 瑾, 拐, 3字), 澄(沖, 儲, 2字), 並(邳, 哺, 2字), 定(道, 導, 蹈, 袒, 殄, 艇, 脫, 7字), 奉(釜, 輔, 2字)

위의 통계에 따라 아래의 두 가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① 全清聲母字의 音變은 38.4%, 次清聲母字의 音變은 62.5%, 次濁聲母字의 音變은 87.5%, 全濁聲母字의 音變은 75%를 차지한다. 통계 숫자로 보면 全清聲母字는 音變의 가능성이 비교적으로 낮으며 次濁聲母字는 音變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音變字가 총 86字이고 그중에 全清聲母字는 총 15字로 모든 音變字의 17.4%를 차지하고, 次清聲母字는 총 16字로 모든 音變字의 18.6%를 차지한다. 또 次濁聲

30) 여기에서 音變이란 음이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시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다르게 변화된 경우를 지칭하기로 한다.

母字는 총 26字로, 모든 音變字의 30.2%를 차지하고, 全濁聲母字는 총 34字이로, 모든 音變字의 39.5%를 차지한다.

위의 두 가지 분석을 보면 音變字들은 주로 次濁과 全濁聲母字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聲調에 의한 분석

또 앞에서 논의한 글자들을 본 논문에서 기술한 순서에 따라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1-2-2-1:

微(次濁), 明(次濁), 從(全濁), 禪(全濁), 以(次濁), 疑(次濁), 群(全濁), 匣(全濁)

② 1-2-1-1

澄(全濁), 邪(全濁), 匣(全濁), 並(全濁), 從(全濁)

③ 1-1-1-2

透(次清), 敷(次清), 清(次清), 溪(次清), 影(全清)

④ 1-1-2-2

徹(次清)

⑤ 4-4-4-3

非(全清), 敷(次清), 來(次濁), 禪(全濁), 清(次清), 並(全濁), 影(全清), 定(全濁)

⑥ 4-4-3-3

透(次清), 日(次濁), 疑(次濁), 溪(次清), 群(全濁)

⑦ 3-3-4-4

以(次濁), 知(全清), 影(全清), 心(全清)

⑧ 3-3-3-4

見(全清), 以(次濁)

⑨ 3-4-3-3

定(全濁), 群(全濁), 匣(全濁)

⑩ 3-4-4-3

奉(全濁), 匣(全濁)

⑪ 4-4-4-2

日(次濁), 疑(次濁), 來(次濁)

⑫ 4-4-4-1

淸(次淸), 見(全淸)

⑬ 5-4-4-2

疑(次濁)

⑭ 5-2-3-1 혹은 5-4-3-1

定(全濁)

⑮ 5-4-4-1

泥(次濁)

결론적으로 平聲은 陰平과 陽平으로 나뉘는 과정에서 표1에 따라 완벽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陰平과 陽平의 混同現象이 생겨났고, 그 중에서 특히 次淸聲母字는 全淸聲母字보다 많이 混同되었다고 할 것이다.

본래 淸聲母字는 陰平으로 변하고, 濁聲母字는 陽平으로 변하여야 하지만, 淸聲母字가 오히려 濁聲母字와 같이 陽平으로 변하는 것에는, 次淸聲母字가 全淸聲母字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次淸 聲母의 성질이 濁字聲母와 더욱 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上聲과 去聲이 변화하는 과정도 표1에 따라서 완벽하게 진행된 것도 아니다. 上聲과 去聲의 混同現象이 생겨나고, 특히 次濁 聲母字는 全濁 聲母字보다 많다.

入聲은 『中原音韻』에서 消失되어, 陰平·陽平·上·去聲으로 변하였다. 부록에 따르면 ‘入聲做上聲’, ‘入聲作平聲·陽’ 등의 분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中原音韻』에서는 이미 入聲을 다른 聲調로 歸入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는 『中原音韻』중의 入聲字와 現代中國語를 대조하여 『中原音韻』의 入聲字를 표1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 平聲과 上·去聲간의 混同現象도 일어나고 있지만 흔한 경우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예외로 한다.

다) 聲符에 의한 분석

또 앞에서 논의한 混同現象이 일어난 글자들을 나열해 보면 聲符가 같으면서도 나중에 音韻과 聲調가 달라진 글자들도 있고, 形聲字들이 함께 변한 글자들도 있

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1-2-2-1

微, 薇, 巫, 誣, 摧, 戕, 殊, 茱, 洙, 銖, 鱸, 傭, 傭, 鏞, 墉, 庸, 悠, 危, 期, 莖

② 1-2-1-1

沖, 松, 缸, 邳, 崔, 酣

③ 1-1-1-2

郤, 孚, 孛, 桴, 雌, 詮, 荃, 穹, 詢, 鑿, 縈, 泓

④ 1-1-2-2

惆

⑤ 4-4-4-3

諷, 訪, 屢, 曙, 娶, 哺, 惋, 譴, 道, 導, 蹈, 纜

⑥ 4-4-3-3

統, 餌, 忤, 蒯, 瑾

⑦ 3-3-4-4

漾, 貯, 憚, 算, 境, 礦

⑧ 3-3-3-4

垢, 誘

⑨ 3-4-3-3

袒, 殄, 艇, 拐, 汞

⑩ 3-4-4-3

釜, 輔, 晃, 幌, 緩

⑪ 4-4-4-2

孺, 玩, 療, 邏

⑫ 4-4-4-1

糙, 究

⑬ 1-1-2-3

菱

⑭ 1-2-2-3

儲

⑮ 1-2-2-4

紉

⑯ 3-4-3-1

媽

아래에서는 동일한 聲符를 글자를 ‘1-2-2-1’과 ‘1-1-1-2’, ‘3-4-4-3’ 등에 나열된 글자를 들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1-2-2-1

‘1-2-2-1’에 나열된 글자 중에서 같은 聲符를 가지는 글자로는 ‘微·薇/ 巫·誣/ 殊·茱·洙·銖/ 鱠·慵·傭·鏞·墉·庸’ 등이 있다. 이것들은 聲調를 보면 『中原音韻』 이후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위 글자들의 『廣韻』에서의 反切은 아래와 같다.

① ‘微·薇’는 [『廣韻』 無非切, 平微, 微.]

② ‘巫·誣’는 [『廣韻』 武夫切, 平虞, 微.]

③ ‘殊·茱·洙·銖’는 [『廣韻』 市朱切·平虞, 禪.]

④ ‘鱠·慵·傭·鏞·墉·庸’중에서 ‘鱠·慵’은 [『廣韻』 餘封切·平鍾, 以.] 와 [『廣韻』 蜀庸切, 平鍾, 禪.] , ‘傭·鏞·墉·庸’은 [『廣韻』 餘封切, 平鍾, 以.]

①과 ②는 『廣韻』부터 현대까지 聲調가 변했지만 서로 발음이 같고, 聲調도 같다. 같은 聲符를 취하고 있으며, 『廣韻』에서도 같은 운에 나열되어 있다. 사실 이와 같이 聲符가 같은 글자는 聲符가 동일하므로 동시에 변화한다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③의 경우는 『廣韻』에서는 같은 발음이었지만, 現代中國語에서는 聲母가 각각 /ʃ-/와 /tʃ-/로 나뉘었다. (殊→/ʃu/, 茱·洙·銖→/tʃu/) 그러나 표3에 따라 禪母字는 平聲의 경우에 /tʃ’-/와 /ʃ-/로 나뉘어야 하므로, 聲母 역시 예외의 변화를 일

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④는 『廣韻』에는 ‘鰯·慵’은 두 개의 反切이 있고, ‘傭·鏞·墉·庸’은 反切이 하나만 있을 뿐이다. 『廣韻』에서는 ‘鰯·慵’은 ‘又讀’이 없으며, ‘傭·鏞·墉·庸’과 反切이 다르다. 그러나 現代中國語에서는 모두 /yuŋ/으로 읽힌다. 以母字는 次濁 聲母字로 표 3을 따르면 零聲母이므로 /i-/ , /u-/ , /y-/이고, 禪母字는 /tʂ-/와 /ʂ-/이고, 現代中國語에서는 /yuŋ/으로 읽히므로, 『廣韻』(蜀庸切, 平鍾, 禪)의 발음은 그 당시의 古音이나 方音일지도 모른다.

(2) 1-1-1-2

‘1-2-2-1’에 나열된 글자 중에서 같은 聲符를 가지는 글자로는 ‘孚·孳·桴’와 ‘詮·荃’ 등이 있다.

위 글자들의 『廣韻』에서의 反切은 아래와 같다.

① ‘孚·孳·桴’는 [『廣韻』 芳無切, 平虞, 敷.]

② ‘詮·荃’은 [『廣韻』 此緣切, 平仙, 淸.]

①과 ②는 『廣韻』에서 現代中國語에 이르기까지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3-4-4-3

‘3-4-4-3’에 나열된 글자 중에서 같은 聲符를 가지는 글자로는 ‘晃·幌’ 등이 있다.

위 글자들의 『廣韻』에서의 反切은 아래와 같다.

‘晃·幌’ [『廣韻』 胡廣切, 上蕩, 匣.]

‘晃·幌’은 『中原音韻』에서는 去聲에 배열되어 있는데, 現代中國語에서는 모두 三聲이다.

4. 『廣韻』의 多音字가 『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로의 변화

聲調의 변화를 고찰하는 데에는 『廣韻』에서 多音字로 읽히는 글자를 빼놓을 수 없다. 한자는 表義文字이기 때문에, 多音字는 그 형태가 같은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뜻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表音文字와 같이 소리를 뜻의 변별 조건으로 한다면 이것은 엄연히 다른 글자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聲調의 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형태의 글자이면 多音字인 것은, 그것이 변별되는 조건이 音韻일 수도 있지만, 聲調일 수도 있으므로, 여기에서 따로 多音字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

小篆으로 동일한 문자의 발음은 한자의 變遷과 分化로 인하여 다양한 발음의 차이가 생겨 나왔다.

多音字 생성의 원인은 비교적 복잡하다. 中國語 語音과 한자자형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변화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多音字는 지역과 시대의 차이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옛날에는 각 지역 간의 문화교류가 편리하지 않아, 그것 인하여 여러 나라의 言語가 형성되었는데, 중국에서는 최초로 秦나라가 六國을 통일함으로써 문자 또한 統一되었다.

위의 기술과 같이 多音字 생성의 원인은 비교적 복잡하며, 中國語語音과 한자자형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변천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인데, 아래에서는 『廣韻』과 『中原音韻』 등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廣韻』은 모두 26,194字가 수록되어 있고, 『中原音韻』은 모두 5,866字가 수록되어 있다. 『中原音韻』에 나오는 대부분 글자들은 현대에도 常用字로 쓰이고 있으며 당시의 大都語³¹⁾이기도 하다.

統計에 따르면 『中原音韻』에 나온 글자 중에서 多音字의 수는 『廣韻』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31) 현재의 북경어이며 元나라 시대에는 大都語라고 했다.

이는 『廣韻』에 모두 26,194字가 수록되어 있고, 『中原音韻』이 모두 5,866字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수록된 글자의 차이도 원인이 되겠지만, 『廣韻』은古今音과方言音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반면, 『中原音韻』은 오로지 한 시대(元代)의 한 지역의音(大都)을 대표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즉 『中原音韻』은 당시의 標準音으로 常用語라고 할 수 있는 반면, 『廣韻』에 나타난 대다수의 多音字는 方言이거나 잘 사용되지 않은 음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廣韻』에서는 多音字이지만 『中原音韻』과 『現代漢語大辭典』에서는 모두 單音字인 것을 골라 고찰하고자 한다.

1) 常用音이 제시된 音變과 일치되는 것

아래 나열된 글자들은 제시된 音變과 일치되는 것이고 多音字 중에 常用音과 消失된 음이 있다. 아래의 글자들 중 ‘1-1-1-1’, ‘1-2-2-2’, ‘3-3-3-3’, ‘4-4-4-4’ 등으로 표시된 것은 『廣韻』, 『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에서 常用되는 음이고 聲調도 董同龢의 표1과 일치한 글자들이다.

東鍾

雍① [yōngㄩㄥ]

[『廣韻』於容切, 平鍾, 影.] 1-1-1-1

[『廣韻』於用切, 去用, 以.]

蜂① [fēngㄈㄥ]

[『廣韻』敷容切, 平鍾, 敷.] 1-1-1-1

[『廣韻』薄紅切, 平東, 并.]

朦① [méngㄇㄥ]

[『廣韻』莫紅切, 平東, 明.] 1-2-2-2

[『廣韻』莫孔切, 上董, 明.]

恐① [kǒng 𠂔×ㄥˇ]

[『廣韻』丘隴切, 上腫, 溪.] 3-3-3-3

[『廣韻』區用切, 去用, 溪.]

珙① [gǒng 𠂔×ㄥˇ]

[『廣韻』居悚切, 上腫, 見.] 3-3-3-3

[『廣韻』九容切, 平鍾, 見.]

訟① [sòng ㄥˋ×ㄥˇ]

[『廣韻』似用切, 去用, 邪.] 4-4-4-4

[『廣韻』祥容切, 平鍾, 邪.]

江陽

裝① [zhuāng 虫×ㄨㄤ]

[『廣韻』側羊切, 平陽, 莊.] 1-1-1-1

[『廣韻』側亮切, 去漾, 莊.]

秧① [yāng 一ㄨㄤ]

[『廣韻』於良切, 平陽, 影.] 1-1-1-1

[『廣韻』於兩切, 上養, 影.]

頡① [háng 厂×ㄨㄤ]

[『廣韻』胡郎切, 平唐, 匣.] 1-2-2-2

[『廣韻』苦浪切, 去宕, 溪.]

防① [fáng 匚×ㄨㄤ]

[『廣韻』符方切, 平陽, 奉.] 1-2-2-2

[『廣韻』符況切, 去漾, 奉.]

償① [cháng 彳×ㄨㄤ]

[『廣韻』市羊切, 平陽, 禪.] 1-2-2-2

[『廣韻』時亮切，去漾，禪.]

快① [yàng一尤]

[『廣韻』於亮切，去漾，影.] 4-4-4-4

[『廣韻』於兩切，上養，影.]

望① [wàng×尤]

[『廣韻』巫放切，去漾，微.] 4-4-4-4

[『廣韻』武方切，平陽，微.]

盎① [àng尤]

[『廣韻』烏浪切，去宕，影.] 4-4-4-4

[『廣韻』烏朗切，上蕩，影.]

孳① [zī尸]

[『廣韻』子之切，平之，精.] 1-1-1-1

[『廣韻』疾置切，去志，從.]

使① [shǐ尸]

[『廣韻』踈士切，上止，生.] 3-3-3-3

[『廣韻』踈吏切，去志，生.]

齊微

姬① [jī尸一]

[『廣韻』居之切，平之，見.] 1-1-1-1

[『廣韻』與之切，平之，以.]

躋① [jī尸一]

[『廣韻』祖稽切，平齊，精.] 1-1-1-1

[『廣韻』子計切，去霽，精.]

隈① [wēi×ㄟ]

[『廣韻』烏恢切, 平灰, 影.] 1-1-1-1

[『廣韻』烏績切, 去隊, 影.]

瑰① [guīㄍㄨㄟˊ]

[『廣韻』公回切, 平灰, 見.] 1-1-1-1

[『廣韻』戶恢切, 平灰, 匣.]

崔① [cuīㄘㄨㄟˊ]

[『廣韻』倉回切, 平灰, 清.] 1-1-1-1

[『廣韻』昨回切, 平灰, 從.]

跪① [guìㄍㄨㄟˋ]

[『廣韻』去委切, 上紙, 溪.]

[『廣韻』渠委切, 上紙, 群.] 3-4-4-4

莓① [méiㄇㄟˊ]

[『廣韻』莫杯切, 平灰, 明.] 1-2-2-2

[『廣韻』莫佩切, 去隊, 明.]

[『廣韻』亡救切, 去宥, 微.]

迴① [huíㄏㄨㄟˊ]

[『廣韻』戶恢切, 平灰, 匣.] 1-2-2-2

[『廣韻』胡對切, 去隊, 匣.]

圍① [wéiㄨㄟˊ]

[『廣韻』兩非切, 平微, 云.] 1-2-2-2

[『廣韻』於貴切, 去未, 云.]

痞① [pǐㄆㄩˇ]

[『廣韻』符鄙切, 上旨, 并.]

[『廣韻』方美切, 上旨, 幫.] 3-3-3-3

[『廣韻』方久切，上有，幫.]

悔① [huǐㄏㄨㄟˇ]

[『廣韻』呼罪切，上賄，曉.] 3-3-3-3

[『廣韻』荒內切，去隊，曉.]

詆① [dǐㄉㄩˇ]

[『廣韻』都禮切，上齊，端.] 3-3-3-3

[『廣韻』杜奚切，平齊，定.]

屨① [xǐㄒㄩˇ]

[『廣韻』所綺切，上紙，生.] 3-3-3-3

[『廣韻』所寄切，去寘，生.]

異① [yìㄩˋ]

[『廣韻』羊吏切，去志，以.] 4-4-4-4

[『廣韻』與之切，平之，以.]

涕① [tìㄊㄧˋ]

[『廣韻』他計切，去霽，透.] 4-4-4-4

[『廣韻』他禮切，上齊，透.]

締① [dìㄉㄧˋ]

[『廣韻』特計切，去霽，定.] 4-4-4-4

[『廣韻』杜奚切，平齊，定.]

帔① [pèiㄆㄟˋ]

[『廣韻』披義切，去寘，滂.] 4-4-4-4

[『廣韻』敷羈切，平支，滂.]

魚摸

噓① [xūㄒㄨ]

[『廣韻』 朽居切, 平魚, 曉.] 1-1-1-1

[『廣韻』 許御切, 去御, 曉.]

迂① [yūㄩˊ]

[『廣韻』 羽俱切, 平虞, 云.]

[『廣韻』 憶俱切, 平虞, 影.] 1-1-1-1

[『廣韻』 於武切, 上麋, 影.]

驅① [qūㄑㄨˊ]

[『廣韻』 豈俱切, 平虞, 溪.] 1-1-1-1

[『廣韻』 區遇切, 去遇, 溪.]

胥① [xūㄒㄨˊ]

[『廣韻』 相居切, 平魚, 心.] 1-1-1-1

[『廣韻』 私呂切, 上語, 心.]

茹① [rúㄖㄨˊ]

[『廣韻』 人諸切, 平魚, 日.] 1-2-2-2

[『廣韻』 人渚切, 上語, 日.]

[『廣韻』 人恕切, 去御, 日.]

如① [rúㄖㄨˊ]

[『廣韻』 人諸切, 平魚, 日.] 1-2-2-2

[『廣韻』 人恕切, 去御, 日.]

歟① [yūㄩˊ]

[『廣韻』 以諸切, 平魚, 以.] 1-2-2-2

[『廣韻』 余呂切, 上語, 以.]

[『廣韻』 羊洳切, 去御, 以.]

娛① [yúㄩˊ]

[『廣韻』 遇俱切, 平虞, 疑.] 1-2-2-2

[『廣韻』 五故切, 去暮, 疑.]

羽① [yǔㄩˇ]

[『廣韻』 王矩切, 上麌, 云.] 3-3-3-3

[『廣韻』 王遇切, 去遇, 云.]

圃① [pǔㄨˇ]

[『廣韻』 博古切, 上姥, 幫.] 3-3-3-3

[『廣韻』 博故切, 去暮, 幫.]

楚① [chǔㄔㄨˇ]

[『廣韻』 創舉切, 上語, 初.] 3-3-3-3

[『廣韻』 瘡據切, 去御, 初.]

苦① [kǔㄎㄨˇ]

[『廣韻』 康杜切, 上姥, 溪.] 3-3-3-3

[『廣韻』 苦故切, 去暮, 溪.]

炷① [zhùㄓㄨˋ]

[『廣韻』 之戍切, 去遇, 章.] 4-4-4-4

[『廣韻』 之庾切, 上麌, 章.]

怒① [nùㄋㄨˋ]

[『廣韻』 乃故切, 去暮, 泥.] 4-4-4-4

[『廣韻』 奴古切, 上姥, 泥.]

皆來

萊① [láiㄌㄞˊ]

[『廣韻』 落哀切, 平哈, 來.] 1-2-2-2

[『廣韻』 洛代切, 去代, 來.]

裁① [cáiㄘㄞˊ]

[『廣韻』昨哉切, 平哈, 從.] 1-2-2-2

[『廣韻』昨代切, 去代, 從.]

靄① [ǎiㄞˇ]

[『廣韻』於蓋切, 去泰, 影.]

[『廣韻』烏葛切, 入曷, 影.] 5-3-3-3

鎧① [kǎiㄎㄞˇ]

[『廣韻』苦亥切, 上海, 溪.] 3-3-3-3

[『廣韻』苦蓋切, 去代, 溪.]

眞文

諄① [zhūnㄓㄨㄣ]

[『廣韻』章倫切, 平諄, 章.] 1-1-1-1

[『廣韻』之閏切, 去稕, 章.]

薰① [xūnㄒㄨㄣ]

[『廣韻』許云切, 平文, 曉.] 1-1-1-1

[『廣韻』許運切, 去問, 曉.]

斤① [jīnㄐㄩㄣ]

[『廣韻』舉欣切, 平欣, 見.] 1-1-1-1

[『廣韻』居焮切, 去焮, 見.]

娠① [shēnㄕㄣ]

[『廣韻』失人切, 平眞, 書.] 1-1-1-1

[『廣韻』章刃切, 去震, 章.]

診① [zhěnㄓㄣˇ]

[『廣韻』章忍切, 上軫, 章.] 3-3-3-3

[『廣韻』直刃切, 去震, 澄.]

引① [yǐn 一 ㄩˇ]

[『廣韻』余忍切, 上軫, 以.] 3-3-3-3

[『廣韻』羊晉切, 去震, 以.]

泯① [mǐn ㄇㄧㄣˇ]

[『廣韻』武盡切, 上軫, 明.] 3-3-3-3

[『廣韻』彌隣切, 平眞, 明.]

賑① [zhèn ㄓㄣˋ]

[『廣韻』章刃切, 去震, 章.] 4-4-4-4

[『廣韻』章忍切, 上軫, 章.]

醞① [yùn ㄩㄣˋ]

[『廣韻』於問切, 去問, 影.] 4-4-4-4

[『廣韻』於粉切, 上吻, 影.]

寒山

漕① [shāo ㄕㄠ]

[『廣韻』所姦切, 平刪, 生.] 1-1-1-1

[『廣韻』數板切, 上漕, 生.]

寰① [huán ㄏㄨㄢˊ]

[『廣韻』戶關切, 平刪, 匣.] 1-2-2-2

[『廣韻』黃練切, 去霰, 匣.]

鏞① [chōng ㄔㄨㄥ]

[『廣韻』初限切, 上產, 初.] 3-3-3-3

[『廣韻』初鴈切, 去諫, 初.]

侃① [kǎn ㄎㄢˇ]

[『廣韻』空旱切, 上旱, 溪.] 3-3-3-3

[『廣韻』苦盱切, 去翰, 溪.]

縮① [wǎnㄨㄢˇ]

[『廣韻』烏板切, 上澹, 影.] 3-3-3-3

[『廣韻』烏患切, 去諫, 影.]

嘆① [tànㄊㄢˋ]

[『廣韻』他旦切, 去翰, 透.] 4-4-4-4

[『廣韻』他干切, 平寒, 透.]

訕① [shànㄕㄢˋ]

[『廣韻』所晏切, 去諫, 生.] 4-4-4-4

[『廣韻』所姦切, 平刪, 生.]

汕① [shànㄕㄢˋ]

[『廣韻』所晏切, 去諫, 生.] 4-4-4-4

[『廣韻』所簡切, 上產, 生.]

疝① [shànㄕㄢˋ]

[『廣韻』所晏切, 去諫, 生.] 4-4-4-4

[『廣韻』所閒切, 平山, 生.]

恒歡

斷① [duànㄉㄨㄢˋ]

[『廣韻』都管切, 上緩, 端.]

[『廣韻』徒管切, 上緩, 定.] 3-4-4-4

[『廣韻』丁貫切, 去換, 端.]

先天

畋① [tiánㄊㄢˊ]

[『廣韻』徒年切, 平先, 定.] 1-2-2-2

[『廣韻』堂練切，去霰，定.]

延① [yán一弓]

[『廣韻』以然切，平仙，以.] 1-2-2-2

[『廣韻』予線切，去線，以.]

鬚① [quán ㄑㄨㄢˊ]

[『廣韻』巨員切，平仙，群.] 1-2-2-2

[『廣韻』丘員切，平仙，溪.]

院① [yuàn ㄩㄢˋ]

[『廣韻』王眷切，去線，云.] 4-4-4-4

[『廣韻』胡官切，平桓，匣.]

宴① [yàn一弓]

[『廣韻』於甸切，去霰，影.] 4-4-4-4

[『廣韻』於殄切，上銑，影.]

蕭豪

標① [biāo ㄅㄧㄠ

[『廣韻』甫遙切，平宵，幫.] 1-1-1-1

[『廣韻』方小切，上小，非.]

飄① [piāo ㄆㄧㄠ

[『廣韻』撫招切，平宵，滂.] 1-1-1-1

[『廣韻』符霄切，平宵，并.]

敲① [qiāo ㄑㄧㄠ

[『廣韻』口交切，平肴，溪.] 1-1-1-1

[『廣韻』苦教切，去效，溪.]

鷓① [liáo ㄌㄧㄠ

[『廣韻』落蕭切, 平蕭, 來.] 1-2-2-2

[『廣韻』力照切, 去笑, 來.]

饒① [ráo ㄖㄠˊ]

[『廣韻』如招切, 平宵, 日.] 1-2-2-2

[『廣韻』人要切, 去笑, 日.]

猺① [náo ㄋㄠˊ]

[『廣韻』奴刀切, 平豪, 泥.] 1-2-2-2

[『廣韻』女救切, 去宥, 娘.]

搖① [yáo ㄧㄠˊ]

[『廣韻』餘昭切, 平宵, 以.] 1-2-2-2

[『廣韻』弋照切, 去笑, 以.]

漕① [cáo ㄘㄠˊ]

[『廣韻』昨勞切, 平豪, 從.] 1-2-2-2

[『廣韻』在到切, 去號, 從.]

舀① [yǎo ㄧㄠˇ]

[『廣韻』以沼切, 上小, 以.] 3-3-3-3

[『廣韻』以周切, 平尤, 以.]

[『廣韻』羊朱切, 平虞, 以.]

巧① [qiǎo ㄑㄧㄠˇ]

[『廣韻』苦絞切, 上巧, 溪.] 3-3-3-3

[『廣韻』苦教切, 去效, 溪.]

驕① [jiào ㄐㄧㄠˋ]

[『廣韻』渠廟切, 去笑, 群.] 4-4-4-4

[『廣韻』巨嬌切, 平宵, 群.]

策① [zhào 虫 ㄓㄠˋ]

[『廣韻』側教切, 去效, 莊.] 4-4-4-4

[『廣韻』側絞切, 上巧, 莊.]

歌戈

拖① [tuō 扌 ㄊㄨㄛ ㄉㄛˋ]

[『廣韻』託何切, 平歌, 透.] 1-1-1-1

[『廣韻』吐邏切, 去箇, 透.]

銚① [cuò 扌 ㄘㄨㄛˋ ㄉㄛˋ]

[『廣韻』麤臥切, 去過, 從.] 4-4-4-4

[『廣韻』昨禾切, 平戈, 從.]

[『廣韻』昨木切, 入屋, 從.]

幡① [pó ㄆㄛˊ ㄉㄛˋ]

[『廣韻』薄波切, 平戈, 并.] 1-2-2-2

[『廣韻』博禾切, 平戈, 幫.]

裹① [guǒ ㄍㄨㄛˇ ㄉㄛˋ]

[『廣韻』古火切, 上果, 見.] 3-3-3-3

[『廣韻』古臥切, 去過, 見.]

墮① [duò ㄉㄨㄛˋ ㄉㄛˋ]

[『廣韻』徒果切, 上果, 定.] 3-4-4-4

[『廣韻』他果切, 上果, 透.]

課① [kè ㄎㄜˋ ㄉㄛˋ]

[『廣韻』苦臥切, 去過, 溪.] 4-4-4-4

[『廣韻』苦禾切, 平戈, 溪.]

家麻

笆① [bā ㄅㄚ ㄩ]

[『廣韻』伯加切，平麻，幫.] 1-1-1-1

[『廣韻』傍下切，上馬，幫.]

車遮

爹① [diē ㄉㄧㄝ 一 ㄗ ˋ]

[『廣韻』陟邪切，平麻，知.] 1-1-1-1

[『廣韻』徒可切，上駮，定.]

野① [yě ㄩㄝˇ 一 ㄗ ˋ]

[『廣韻』羊者切，上馬，以.] 3-3-3-3

[『廣韻』承與切，上語，禪.]

庚青

生① [shēng 尸 ㄥ]

[『廣韻』所庚切，平庚，生.] 1-1-1-1

[『廣韻』所敬切，去映，去.]

爭① [zhēng 虫 ㄥ]

[『廣韻』側莖切，平耕，莊.] 1-1-1-1

[『廣韻』疾郢切，上靜，從.]

腥① [xīng 丁 ㄥ]

[『廣韻』桑經切，平青，心.] 1-1-1-1

[『廣韻』蘇佞切，去徑，心.]

評① [píng 夂 ㄥ ˊ]

[『廣韻』符兵切，平庚，并.] 1-2-2-2

[『廣韻』皮命切，去映，并.]

枰① [píng 夂 ㄥ ˊ]

[『廣韻』符兵切，平庚，并.] 1-2-2-2

[『廣韻』皮命切，去映，并.]

層① [céng ㄘㄥˊ]

[『廣韻』昨稜切, 平登, 從.] 1-2-2-2

[『廣韻』作滕切, 平登, 精.]

廷① [tíng ㄊㄧㄥˊ]

[『廣韻』特丁切, 平青, 定.] 1-2-2-2

[『廣韻』徒徑切, 去徑, 定.]

霆① [tíng ㄊㄧㄥˊ]

[『廣韻』特丁切, 平青, 定.] 1-2-2-2

[『廣韻』徒鼎切, 上迥, 定.]

倣① [jǐng ㄐㄩㄥˇ]

[『廣韻』居影切, 上梗, 見.] 3-3-3-3

[『廣韻』渠敬切, 去映, 群.]

尤候

鬪① [jiū ㄐㄩㄠ]

[『廣韻』居求切, 平尤, 見.] 1-1-1-1

[『廣韻』居黝切, 上黝, 見.]

收① [shōu ㄕㄡ]

[『廣韻』式州切, 平尤, 書.] 1-1-1-1

[『廣韻』舒救切, 去宥, 書.]

蹂① [róu ㄖㄡˊ]

[『廣韻』耳由切, 平尤, 日.] 1-2-2-2

[『廣韻』人九切, 上有, 日.]

[『廣韻』人又切, 去宥, 日.]

鞣① [róu ㄖㄡˊ]

[『廣韻』耳由切, 平尤, 日.] 1-2-2-2

[『廣韻』人又切, 去宥, 日.]

狃① [niǔㄋㄩㄟˋ]

[『廣韻』女久切, 上有, 娘.] 3-3-3-3

[『廣韻』女救切, 去宥, 娘.]

吼① [hǒuㄏㄡˇ]

[『廣韻』呼后切, 上厚, 曉.] 3-3-3-3

[『廣韻』呼漏切, 去候, 曉.]

鰈① [zōuㄗㄡ]

[『廣韻』徂鉤切, 平侯, 從.]

[『廣韻』七逾切, 平虞, 清.] 1-1-1-1

[『廣韻』仕垢切, 上厚, 崇.]

走① [zǒuㄗㄡˇ]

[『廣韻』子苟切, 上厚, 精.] 3-3-3-3

[『廣韻』則候切, 去候, 精.]

右① [yòuㄩˋ]

[『廣韻』於救切, 去宥, 云.] 4-4-4-4

[『廣韻』云久切, 上有, 云.]

饒① [liùㄌㄩˋ]

[『廣韻』力救切, 去宥, 來.] 4-4-4-4

[『廣韻』力求切, 平尤, 來.]

扣① [kòuㄎㄡˋ]

[『廣韻』苦候切, 去候, 溪.] 4-4-4-4

[『廣韻』苦后切, 上厚, 溪.]

侵尋

針① [zhēn 虫 ㄣ]

[『廣韻』職深切，平侵，章.] 1-1-1-1

[『廣韻』之任切，去沁，章.]

深① [shēn 尸 ㄣ]

[『廣韻』式針切，平侵，書.] 1-1-1-1

[『廣韻』式禁切，去沁，書.]

監咸

耽① [dān 刀 ㄣ]

[『廣韻』丁含切，平覃，端.] 1-1-1-1

[『廣韻』都感切，上感，端.]

憊① [hān 厂 ㄣ]

[『廣韻』呼談切，平談，曉.] 1-1-1-1

[『廣韻』下瞰切，去闕，匣.]

攬① [chān 彳 ㄣ]

[『廣韻』楚銜切，平銜，初.] 1-1-1-1

[『廣韻』士咸切，平咸，崇.]

譚① [tán 土 ㄣ]

[『廣韻』徒含切，平賈，定.] 1-2-2-2

[『廣韻』徒感切，上感，定.]

讒① [chán 彳 ㄣ]

[『廣韻』士咸切，平咸，崇.] 1-2-2-2

[『廣韻』士讎切，去鑑，崇.]

減① [jiǎn 冫 ㄣ]

[『廣韻』古斬切，上賺，見.] 3-3-3-3

[『廣韻』下斬切, 上賺, 匣.]

淦① [gàn ㄍㄢˋ]

[『廣韻』古暗切, 去勘, 見.] 4-4-4-4

[『廣韻』古南切, 平覃, 見.]

頔① [hàn ㄏㄢˋ]

[『廣韻』胡感切, 上感, 匣.] 3-4-4-4

[『廣韻』胡男切, 平覃, 匣.]

廉纖

兼① [jiān ㄐㄧㄢ 一 ㄣ]

[『廣韻』古牀切, 平添, 見.] 1-1-1-1

[『廣韻』古念切, 去牀, 見.]

闞① [yān ㄧㄢ 一 ㄣ]

[『廣韻』央炎切, 平鹽, 影.] 1-1-1-1

[『廣韻』衣儉切, 上琰, 影.]

蟾① [chán ㄔㄢ 二 ㄣ]

[『廣韻』職廉切, 平鹽, 章.]

[『廣韻』視占切, 平鹽, 禪.] 1-2-2-2

潛① [qián ㄑㄧㄢ 二 ㄣ]

[『廣韻』昨鹽切, 平鹽, 從.] 1-2-2-2

[『廣韻』慈豔切, 去豔, 從.]

臉① [liǎn ㄌㄧㄢˇ]

[『廣韻』力減切, 上賺, 來.] 3-3-3-3

[『廣韻』七廉切, 平鹽, 清.]

閃① [shǎn ㄕㄢˇ]

[『廣韻』 失冉切, 上琰, 書.] 3-3-3-3

[『廣韻』 舒贍切, 去豔, 書.]

忝① [tiǎnㄊㄧㄢˇ]

[『廣韻』 他玷切, 上忝, 透.] 3-3-3-3

[『廣韻』 他念切, 去栝, 透.]

鑿① [yànㄧㄢˋ]

[『廣韻』 於豔切, 去豔, 影.] 4-4-4-4

[『廣韻』 一鹽切, 平鹽, 影.]

歉① [qiànㄑㄧㄢˋ]

[『廣韻』 口陷切, 去陷, 溪.] 4-4-4-4

[『廣韻』 苦簞切, 上忝, 溪.]

[『廣韻』 苦減切, 上賺, 溪.]

위의 글자들은 모두 『廣韻』에서 발음이 두 가지 이상인 多音字이며, 『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에서는 모두 單音으로 읽히는 글자들이다. 이것은 앞에서 나열한 바와 같이 『廣韻』은 方言音과 古今音을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2) 常用音이 제시된 音變과 일치되지 않는 것

제시된 音變과 일치되지 않는 예로 아래 글자들을 들 수 있다.

『廣韻』에서 여러 가지 음으로 읽히며 聲調變化 趨勢는 비슷하지만 분석해 보면 어느 것이 常用音인지 알 수 있는 음은 아래에 ‘*’로 표시한다.

가) 常用音을 쉽게 정할 수 있는 것

卉① [huìㄏㄨㄟˋ]

[『廣韻』 許貴切, 去未, 曉.] 4-4-3-4

[『廣韻』許偉切, 上尾, 曉.] 3-3-3-4*

‘4-4-3-4’의 경우, 『廣韻』에서는 去聲이고, 董同龢에 따르면 四聲이며, 現代中國語에서도 四聲으로 읽히는데, 『中原音韻』에서만 上聲에 나열되었다.

그러나 ‘3-3-3-4’의 경우, 『廣韻』에서는 上聲이고, 董同龢에 따르면 三聲이며, 『中原音韻』에서도 上聲에 나열되어 있으나, 변화하는 과정 중에 上·去聲이 혼동되어 現代中國語에서는 四聲으로 읽힌다.

아래의 ‘鄔, 桴, 馯, 襍, 縵, 驚, 鐮, 鈔, 焉’ 등도 모두 비슷한 경우이다.

鄔① [wū×]

[『廣韻』哀都切, 平模, 影.] 1-1-3-1

[『廣韻』安古切, 上姥, 影.] 3-3-3-1*

[『廣韻』依倨切, 去御, 影.]

桴① [fúㄘˊ]

[『廣韻』縛謀切, 平尤, 奉.] 1-2-1-2

[『廣韻』芳無切, 平虞, 敷.] 1-1-1-2*

馯① [hānㄏㄢ]

[『廣韻』侯旰切, 去翰, 匣.] 4-4-4-1*

[『廣韻』許干切, 平寒, 曉.] 1-1-4-1

襍① [luánㄌㄨㄢˊ]

[『廣韻』落官切, 平桓, 來.] 1-2-3-2

[『廣韻』力充切, 上獮, 來.] 3-3-3-2*

縵① [quǎnㄑㄨㄢˋ]

[『廣韻』去阮切, 上阮, 溪.] 3-3-4-3

[『廣韻』去願切, 去願, 溪.] 4-4-4-3*

驚① [àoㄠˋ]

[『廣韻』五到切, 去號, 疑.] 4-4-2-4

[『廣韻』五勞切, 平豪, 疑.] 1-2-2-4*

鏐① [liáo ㄌㄧㄠˊ]

[『廣韻』落蕭切, 平蕭, 來.] 1-2-4-2

[『廣韻』力弔切, 去嘯, 來.] 4-4-4-2*

鈔① [chāo ㄔㄠˊ]

[『廣韻』楚交切, 平肴, 初.] 1-1-4-1

[『廣韻』初教切, 去效, 初.] 4-4-4-1*

焉① [yān ㄧㄢˊ]

[『廣韻』於乾切, 平仙, 影.] 1-1-2-1

[『廣韻』有乾切, 平仙, 云.] 1-2-2-1*

[『廣韻』謁言切, 平元, 影.] 1-1-2-1

나) 常用音을 쉽게 정할 수 없는 것

嫣① [yān ㄧㄢˊ]

[『廣韻』於乾切, 平仙, 影.] 1-1-1-1

[『廣韻』許延切, 平仙, 曉.] 1-1-1-1

[『廣韻』於蹇切, 上獮, 影.]

[『廣韻』於建切, 去願, 影.]

위에 影母와 曉母는 모두 ‘1-1-1-1’ 경우인데 표3 [中古音과 現代中國語의 聲母 對照表]에 따르면, 現代中國語에서는 曉母가 /x-/나 /ç-/ 등으로 읽히고, 聲母가 零聲母(/i-/)인 경우는 없다.

아래의 ‘剖’도 이와 같다.

剖① [pōu ㄆㄡˊ]

[『廣韻』普后切, 上厚, 滂.] 3-3-3-1

[『廣韻』 芳武切, 上麌, 敷.] 3-3-3-1

위에서는 혼동되는 양상만을 살펴보았을 뿐, 혼동되는 것에 일정한 규칙을 찾을 수는 없었다. 이후에도 『中原音韻』에 국한하지 않고 더 많은 한자를 대상으로 삼아 이러한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일정한 규칙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3장 結論

본 논문은 中古音과 近·現代音의 聲調에 관한 연구이다. 聲調는 『廣韻』에서 『中原音韻』을 거쳐 現代中國語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요소들의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면 전란으로 인한 인구이동과 외래인구의 대거 流入은 官話와 方言의 혼합을 초래했다. 또한 사회의 발전과 언어표현 및 어휘량의 대량 증가 등은 언어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어, 聲母·韻母와 聲調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聲母·韻母와 聲調는 역시 서로 간에 影響을 주기도 하였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聲調의 변화는 聲母의 濁音清화와 入聲韻尾의 消失 등과 관련이 있다.

中國語 音節은 聲母·韻母와 聲調가 함께 구성된 완전한 체계이다. 만약에 이 체계의 어떤 부분에 변화가 생기면 다른 부분도 따라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런 변화로 인하여 모든 음체계에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라 음체계 내부의 조화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고대 聲母·韻母의 변화가 고대 四聲에서 현대 四聲으로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中原音韻』에 수록된 글자들을 모두 『現代漢語大辭典』에서 찾아내서 비교하면서 單音字 중 확실히 聲調 혼동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글자로 80여 글자를 나열하였다.

聲母의 清濁방면에서 분석하면, 聲調變化의 例外現象은 次濁聲母(87.5%), 全濁聲母(75%), 次清聲母(62.5%), 全清聲母(38.4%)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全清聲母(38.4%)는 音變 발생빈도가 적지만, 全清聲母에서의 影系와 見系の 中古音이 近·現代音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介音의 생성에 영향을 주어 等呼를 변화시켰다. 見母字가 音變이 발생한 全清聲母字 中の 33.3%를 차지하였다. 또한 影母字가 40%를 차지하여 두 글자를 합치면 全清聲母字의 73.3%를 차지한다.

聲調變化의 例外字는 총 86字이고, 그 중에 全清聲母字는 총 15字로 모든 例外字의 17.4%를 차지하고, 次清聲母字는 총 16字로 모든 例外字의 18.6%를 차지하며, 次濁聲母字는 26字로 모든 例外字의 30.2%를 차지하고, 全濁聲母字는 34字로 모든 例外字의 39.5%를 차지한다.

또 聲調방면에서 보면 平聲은 陰平和 陽平으로 나뉘는 과정에서 표1에 따라 완벽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陰平和 陽平의 混同現象이 생겨났고, 또한 上聲과 去聲이 변화하는 과정도 표1에 따라서 완벽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上聲과 去聲의 混同現象이 생겨났다. 入聲은 거의 완벽하게 표1에 따라 진행하였다.

混同現象이 일어난 글자들은 聲符가 같으면서도 나중에 音韻과 聲調가 달라진 글자들도 있고, 形聲字들이 함께 변한 글자들도 있다.

聲符를 가지는 글자로는 ‘微·薇/ 巫·誣/ 殊·茱·洙·銖/ 鱸·慵·傭·鏞·庸’ 등이 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것들의 聲調는 『中原音韻』 이후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多音字 중에 常用音과 消失된 音이 있다. 그 중에 대부분 글자들은 『廣韻』에서 발음이 두 가지 이상인 多音字이며, 『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에서는 모두 單音으로 읽히는 글자들이다. 이것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廣韻』은 方言音과 古今音을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위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聲調의 변화는 聲母의 清濁뿐만 아니라 古音의 변화와

韻母 등과 같은 기타 여러 가지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동시에 聲調도 聲母와 韻母의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聲調의 혼동현상을 소홀히 볼 수 없다. 聲調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聲母, 韻母, 介音 등 다양한 요소의 상호작용을 볼 수 있다.

【參考書目】

1. 李敦柱,『漢字學總論』,博英社出版,1979年10月30日.
2. 董同龢,『中國語音韻學』,文史哲出版社,1954年.
3. 金相根,『中語學基礎』,중앙대학교출판부,1993년.
4. 周德清,『中原音韻』,1324年成書
5. 陳彭年·丘雍,『廣韻』,1008年成書
6. 竺家寧,『聲韻學』,國立編譯館主編,1992年.
7. 文璇奎,『中國古代音韻學』,民音社出版,1966年.
8. 『董同龢先生語言學論文選集』,丁邦新編,1975年出版.
9. 王力,『王力文集』(第四卷),山東教育出版社,1985年
10. 王力,『王力文集』(六卷),山東教育出版社,1986年.
11. 王力,『王力文集』(十卷),山東教育出版社,1987年.
12. 王力,『王力文集』(十二卷)山東教育出版社,1990年.
13. 王力,『王力文集』(十七卷),山東教育出版社,1989年 .
14. 안재철,『‘韻略匯通’의 音價 推定』, 박사 논문,1994年.
15. 陸志偉『釋〈中原音韻〉』,『國語入聲演變小注』,載『陸志偉近代中國語音韻論集』,商務印書館,1988年.
16. 羅常培,『唐五代西北方音』,科學出版社,1961年.
17. 邵榮芬,『中原雅音研究』,山東人民出版社,1981年.
18. 陽耐思,『中原音韻音系』,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1年.
19. 張玉來,『元明以來韻書中的入聲問題』,『中國語文』,1991.5.『近代中國語官話入聲的消亡過程及相應語音性質』,『山東師大學報』,1991.1.
20. 高福生,『中原音韻入聲補述』,載『中原音韻新探』,北京大學出版社,1991年.
21. 汪如東,『中國語方言修辭學』,學林出版社,2004年.
22. 瞿靄堂,『漢藏語言聲調起源研究中的幾個理論問題』,『民族語文』,1999年,第2期.
23. 吳安其,『上古中國語韻尾和聲調的起源』,『民族語文』,2001年第2期.
24. 徐通鏘,『聲母語音特征的變化和聲調的起源』,『民族語文』,1998年,第1期.
25. 平山久雄,『中國語聲調起源窺探』,『語言研究』,1991年第1期.
26. 주성일,『明代 官話의 聲調 체계 연구--韓中 譯音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중국언어학회, 중국언어연구, 2006년.

27. 이미경, 『중국어 동일성조의 음높이 변화』 2009년, 한국중국어언어학회, 중국언어연구.
28. 이미경, 『운율 층위의 중국어 3성 변조』, 2009년, 영남중국어문학회, 중국어문학.
29. 陸志韋, 『陸志偉語言學著作集』(一), 1985年, 中華書局.
30. 羅常培, 『唐五代西北方音』, 科學出版社, 1961年.
31. 楊耐思, 『中原音韻音系』,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年.
32. 林燾, 王理嘉合著, 『語音學教程』, 五南出版社, 2011年09月22日 .

Study On Chinese Intonations' Exceptional Changing

----- Based on 『Guang Yun(廣韻)』
and 『Zhongyuan Yinyun(中原音韻)』

TIAN HUI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ae-Cheol Ahn)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the Chinese tonal change among the three elements in Chinese syllable. Up to the present, the studies on classical phonology books in Chinese Phonology have been done with focus on 'Consonants & Vowels.' In short, The existing researches on classical phonology books, which was the basic to classical poetry and literary works, were mainly addressing consonants & vowels. In contrast, the researches on a classical tone have not been active. However, a tone has a big influence on the sound and meaning, so it's a part of Chinese Phonology that cannot be overlooked. A tone becomes a very important basis of discernment of the sound and meaning; hereupon, this paper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fference and change between 『Guangyun(廣韻)』 and modern Chinese sound with focus on 『Zhongyuan Yinyun(中原音韻)』.

The direction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n relation with even tone divided into yin tone and yang tone(平分陰陽)', the rhythmic dictionary 『Guangyun(廣韻)』 is divided into four tones including *píng shēng*(even tone), *shàng shēng* (rising tone), *qù shēng*(disappearing tone), and *rù shēng*(entering tone). In 『Zhongyuan Yinyun(中原音韻)』, *píng shēng*(even tone) is divided into 'yin even tone(陰平)' and 'yang even tone(陽平).'

The clear prefix consonants of an even tone changed into *yin* even tone (*yīnpíng*) while muddy prefix consonants changed into a yang even tone(*yangping*), but the

change of the tones doesn't always have something to do with prefix consonants. It's because the prefix consonants are subdivided into 'full clear', 'second clear', 'second muddy' and 'full muddy'.

Second, as for 'characters with muddy consonant with rising tone changing into departing tone(濁上變去)', the characters with a rising tone in 『Guangyun(廣韻)』 changed into a departing tone in 『Zhongyuan Yinyun(中原音韻)』 . However, it's not proper to say that the prefix consonants changed into a departing tone just because there have been lots of phenomena where many muddy consonants changed into clear consonants in the transitional process of prefix consonants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times.

Third, in relation with 'Entering tone changed into other three tones of 『Zhongyuan Yinyun(中原音韻)』', this paper thinks that if the entering tone of 『Zhongyuan Yinyun(中原音韻)』 disappeared, and changed into other tones, it's necessary to do research on what kind of rule caused such a change and whether the change was made by other elements.

This thesis is going to put its focus on finding out the change of Chinese tones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and the reason for such a change on the basis of 『Guangyun(廣韻)』 and 『Zhongyuan Yinyun(中原音韻)』 ,

The research analysis results are suggested as follows:

From ancient times until today, the development and change of tones have a relationship with prefix consonants, which changed from muddy into clear, and the disappearance of entering tone's ending. Chinese syllables are a perfect system which is made up of prefix consonant & vowel and tone. If there happens a change in any part of this system, the other parts will also cause changes. By virtue of such changes, there comes up a change in sound system and accordingly, the internal harmony in the sound system can be created. Hereupon, it is judged that the change of ancient consonants and vowels caused the change from the ancient tones to modern tones.

Discovering and comparing all the characters included in 『Zhongyuan Yinyun(中原音韻)』 from 『Modern Chinese Dictionary(現代漢語大辭典)』 , this paper listed more than 80 characters that cause a certain tonal confusion among the monosyllabic characters.

This paper did research mainly on the confusing phenomenon between yin even tone and yang even tone after dividing an even tone into *yang* and *yin*, and also between the rising tone and departing tone.

The analysis of clear and muddy prefix consonants showed that the exceptional phenomenon of tonal changes occurred in the order of second muddy prefix consonants(87.5%), full muddy prefix consonants(75%), second clear prefix consonants(62.5%), and full clear prefix consonants(38.4%).

Full clear prefix consonants(38.4%) was found to be low in occurrence frequency, but they change 等呼 by giving impact on the formation of a broad in the process in which medieval tones of *yǐng* group and *jiàn* group in the full clear prefix consonants changed into modern and today's sound.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jiàn* group accounted for 33.3% of all the characters in full clear prefix consonants which had a tonal change. In addition, *yǐng* group was founded to account for 73.3%. and in case these two letters are combined, the proportion of the full clear prefix consonants is 73.3%.

The number of exceptional characters in tonal change was found to be a total of 86, among which the number of characters of full clear prefix consonants was 15, accounting for 17.4% of all exception characters while the number of second clear prefix consonants was 16 in total, accounting for 18.6% of all exceptional characters. In addition, the number of second muddy prefix consonants was 26, accounting for 30.2% of all exceptional characters and characters of full muddy prefix consonants 34, accounting for 39.5%.

Through the study as above, it was confirmed that not only the muddy and clear of prefix consonants, but also several elements such as the change of ancient tones and vowels should be considered for more in-depth understanding of tonal change, and at the same time, that tones also rather had a constant influence on the change of prefix consonants and vowels. Accordingly, tones

have changed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diverse elements such as prefix consonants, vowels, and a broad, etc. in the process of tonal change without regarding only the confusion phenomenon of tones as a special case.

In conclusion, an even tone wasn't perfectly in progress in the process in which it was divided into yin even tone and yang even tone, so there occurred a confusion phenomenon between yin even tone and yang even tone; in addition, the rising tone and departing tone wasn't perfectly in progress even in the process where the rising tone and departing tone changes, either; in addition, there happened the confusion phenomenon between the rising tone and departing tone while the entering tone was found to be in almost perfectly in progress.

Key words: phonology, tones, consonants, vowels, confusion phenomenon.

【부록】

『中原音韻』曲韻常用字表

東鍾

平聲陰:東冬鍾中忠 衷終通松嵩 沖充春種忡 懂雍邕空宗 風楓豐封蜂 峰鋒烽匆蔥
聰凶縱縱穹 傾工公功攻 弓蚣躬恭宮 供宮龔烘轟 薨胸凶兄翁 壅泓崩縹烹

平聲陽:同銅童桐筒 峒瞳潼戎絨 蓉龍隆窿窮 蛩邛隴籠瓏 蒼聾隴農 濃重蟲慵鯨
崇馮逢縫叢 棕熊雄容溶 蓉傭鏗墉庸 融榮蒙朦盲 萌紅虹洪鴻 宏弘橫嶸從 蓬彭篷鵬棚

上聲:董懂腫踵種 冢孔恐桶統 汞隴壟攏聳 竦拱鞏琇勇 湧踴傭永猛 虻猛懵捧寵

去聲:洞棟動凍鳳 奉諷縫共供 貢宋送弄砉 控空訟誦頌 甕痛衆中仲 重種縱從綜 孟
夢用詠瑩 哄橫粽迸

江陽

平聲陰:江姜僵疆杠 邦梆幫桑喪 霜孀雙章樟 漳獐張璋商 傷瘍觴湯漿 將莊裝椿妝
岡鋼缸剛綱 扛亢康糠光 胱當擋荒盲 香鄉相箱湘 襄鎊滂羌腔 蜣鴛央殃殃 泐方芳坊肪
妨昌猖娼閻 湯鏗搶鏘匡 筐眶汪倉蒼 瘡窗臧髒

陽:陽揚樣羊佯 洋徉茫忙邗 芒糧良涼梁 量忘亡郎廊 榔螂琅狼浪 杭航頡行昂 床幢
撞 旁傍 房龐防長腸 場常裳嘗償 唐糖塘塘堂 翔祥詳牆檣 牆戕黃簧潢 篁皇凰惶藏 强
娘降 王狂 囊

上聲:講鏘港養癢 鞅獎獎蔣兩 魍想莽蟒爽 響享饗秀敞 警昶放仿肪 仿 網罔輞枉
往唵榜倘黨 掌長朗慌謊 仰廣强搶賞 响

去聲:絳降虹强相 象亮輛諒量 養快殃漾恙 樣狀壯撞尙 上警昶帳脹 漲丈杖障瘴 巷
向項匠醬 將唱倡暢悵 創忘望妄旺 王放訪蕩當 宕擋浪閻傍 謗蚌棒藏葬 亢抗炕 曠曠
曠晃幌況釀 仰喪胖行愴 盎餞鋼湯

支思

平聲 陰：支肢枝柅卮 氏之芝脂胝 孳孜滋茲資 咨淄姿差施 詩師著屍獅 斯撕思司私
厮絲鷺蝨雌

陽：兒而瓷慈磁 疵茨匙時詞 祠辭

上 聲：紙砥咫址底 旨指止趾芝 祉徵爾邇耳 餌珥此使駛 弛史矢豕始 子紫姊梓死 齒
仔

入聲做上聲：澀瑟塞

去 聲：是氏市柿士 侍弒仕益嗜 使示施恃事 試視噬似巳 賜似嗣記飼 祀伺俟寺食 思
四肆泗駟 刺次字漬自 咨志至二貳 餌翅廁

齊微

平聲 陰：幾機磯玦譏 肌饑基箕雞 姬奇稽羈歸 圭龜閨規齋 擠躋齋雖綏 尿妥睢低氏
堤抵妻棲淒 萋西犀嘶灰 揮輝暉暉麾 徽悲卑碑陂 追騅錐威煨 隈飛非扉緋 菲妃霏溪騎
欺希稀曦羲 烹嘻僖犧熙 衣依伊猗漪 醫臆吹炊推 披批邳丕呬 醅胚魁盔虧 窺奎瑰癡蚩
咎螭鴟崔催 衰堆知蜘蛛

陽：微維薇唯離 黎犁籬藜璃 驪鸕麗狸痢 厘漓泥尼梅 枚莓媚糜媒 煤眉湄楣累 雷雷
羸 隨隋 齊濟回徊圍 韋闍椽幃委 危爲肥淝奇 騎祁其祈其 耆祇芪岐薪 琪綺期旗麒 歧
髻奚 兮攜 蹊移倪霓睨 嶷姨夷沂宜 儀彝怡怡飴 怡圯頤遺提 蹄題啼醍梯 垂錘陲裴陪
培皮葵 馘夔 逵池弛遲持 墀頹脾疲羸 疲比迷彌誰 摧

入聲作平聲：陽：實十什石射 食拾蝕直值 侄秩擲疾嫉 集寂夕習席 襲荻狄敵笛 及極
惑 逼賊 核

去聲作平聲：鼻

上 聲：迤尾倚椅蟻 已矣苡以擬 美己幾紀恥 痞否鬼軌癸 桅悔毀卉比 匕妣禮醴裏 李
鯉理履 擠濟底邸詆 洗璽徒屣起 啓豈綺杞米 眯彌妳旣祢 彼鄙喜委猥 偉唯葦壘磊 蕾
儻體腿蕊 髓水餒

入聲作上聲：只質炙織汁 七戚漆刺匹 劈僻吉擊激 棘戟急汲給 筆北室失識 適拭飾釋

軾 濕積啣稷績 迹脊鯽必壁 璧畢碧筆吸 隙檄昔惜息 錫浙吃尺赤 叱的滴嫡得 德滌踢剔
乞 泣訖國黑壹

去 聲：未味胃謂渭 衛慰緯穢魏 畏位貴櫃跪 檜愧恇桂繪 吠沸費肺廢 芾會晦誨惠 蕙
諱慧潰翠 脆淬悴萃異 裔義議誼藝 毅易意氣器 棄憩契霽祭 濟際替剃涕 噉帝締諦弟 第
娣背貝狽 倍被焙婢備 避輩幣臂帔 利唳俐莉例 離曆礪麗荔 妻砌細醉罪 最對隊兌計 記
寄系繼妓 技讐忌季騎 既閉蔽庇嬖 斃比秘陛謎 睡稅說瑞退 蛻歲崇隧遂 彗碎粹邃燧 穗
墜贅縋綴 制置稚滯稚 治幟智質世 勢逝誓累淚 播類來佩配 沛悖妹妹媚 魅袂寐瑁戲 系
泥膩銳芮 蚋吹內

入聲作去聲：日入覓蜜密 墨立粒笠曆 厲瀝力栗霽 易逸譯驛溢 鎰益壹掖液 役疫逆射
乙 揖邑憶翼勒 肋劇匿

魚摸

平聲 陰：居裾據車駒俱 諸豬珠朱殊 株蛛誅侏蘇 酥樞粗芻梳 蔬疏噓墟虛 籲蛆趨疽
睢 狙沮孤姑鴣 沽姑辜觚枯 刳于迂于鳴 汙烏書舒輸 區驅驅區須 婿需夫膚孚 孥麩趺杼
敷 呼初都租

陽：廬閭驢萎茹 如儒嚅儒無 蕪巫誣摸謨 模謀徒圖途 荼塗屠奴鴛 盧蘆顛鱸瀟 爐魚
漁 虞余 于芋與輿好 歟譽孟愚禺 隅臬楡諛腴 愉兪逾渝瑜 吳吾蜈梧娛 雛鋤殊荼洙 銖
渠衢 瞿除 滌蝮廚儲躡 扶夫芙鳧蚨 符浮蒲脯湖 胡糊壺瑚鵠 弧乎徐

入聲作平聲：讀獨犢犢毒 犢突複佛袱 伏服斛鴿鵠 屬贖秫述術 俗續逐軸族 鏃仆局淑
蜀 孰熟塾

上 聲：語雨與吾禦 愈羽宇禹庾 呂侶旅縷婁 主煮拄翥墅 汝乳鼠黍暑 阻處杵楮褚 杼
數所組祖 舞武鵠侮土 吐魯鹵櫓虜 睹堵賭古沽 估牯股蠱賈 鼓估五伍忤 午鄔塢虎滸 補
圃浦普譜 溥甫斧撫脯 俯腑父否母 牡某畝姥楚 礎舉矩櫛莒 努弩許詡取 苦咀女嶼偃 去

入聲作上聲：谷骨穀縮謬 速複福幅蝠 拂腹覆蔔不 局菊忽築燭 竹粥粟宿屈 曲哭酷窟
出 黜畜叔菽督 暴撲觸束簇 足促秃卒蹙 屋兀沃

去 聲：禦芋馭嫗諭 遇裕譽預豫 慮濾屢句鋸 懼踞詎炬苴 據巨屨拒具 樹恕庶戍豎 暑
曙趣覩娶 注住著柱鑄 主駐貯數疏 絮序敘緒茹 孺杜蠹肚度 渡赴父釜輔 付仆富傅賦 訃
婦附阜負 戶帖怙扈獲 辱務霧戍鶩 素訴塑暮慕 墓募路鶩露 潞賂故固顧 銅雇誤悟惡 汙

寤布佈部 哺簿捕步醋 錯措做詛兔 吐怒鋪互去 聚助

入聲作去聲：祿鹿漉麓 木沐穆睦沒目 錄綠陸戮律 物勿辱入褥 玉獄欲浴 育郁鴿

皆來

平聲 陰：皆階街楷偕 該孩孩哉栽 災釵差台胎 郃駘哀唉埃 挨猜衰腮歪 開揩齊乖篩
揣

陽：來萊鞋諧骸 牌排俳懷槐 淮埋霾皃孩 柴豺儕崖捱 才材財裁台 苔擡能

入聲作平聲：白舶帛宅澤 畫劃

上 聲：海詒給駭蟹 宰載彩采藹 靄乃奶劓凱 鎧拐揣擺矮 解楷買改

入聲作上聲：拍珀魄冊策 跚珊測伯百 柏迫貉革隔 格客刻責幘 摘側窄仄謫 色穉索擱
擗 嚇則

去 聲：懈械懈寨債 態泰太汰丐 蓋愛艾捱隘 奈耐害亥戴 帶怠待代袋 大黛岱戒誠 解
界芥屆外 快唵塊再在 載邁賣賴籟 拜敗稗湃憊 菜蔡曬灑煞 塞賽壞慨派 帥率

入聲作去聲：麥陌驀脈額 厄擗

眞文

平聲 陰：分紛芬汾噴 昏婚暈因姻 殷茵申紳身 伸春椿詢荀 吞噉諄根跟 欣忻昕氳眞
珍振甄新薪 辛賓濱彬坤 君軍均鈞臻 榛醺薰勳噀 昆鯤溫瘟孫 苜莘尊樽敦 墩奔賁巾斤
筋村親遵恩 噴津

陽：鄰隣鄰隣磷 麟貧頻嚶瀕 民仁人倫綸 掄輪淪群裙 勤芹們捫論 文紋聞蚊銀 覲垠
寅 鄞盆 陳臣塵辰晨 辰嗔趁秦唇 淳醇純鶉巡 旬馴循雲芸 紘耘勻墳焚 魂渾臀豚鈍 屯
神存 蹲痕 紉娠

上 聲：軫疹診肯懇 壘巖緊謹謹 瑾隱引蚓尹 閔憫敏泯准 吻勿笱允隕 隕允畚本壺 悃
蜃晒品很 狠不忍盾損 蠢穩瞬袞

去 聲：震陣振賑鎮 信訊迅燼盡 進晉刃認仞 吝藺磷鬢殯 臆腎慎運恹 蘊醞愠暈韻 忿
分糞奮近 覲印孕峻浚 殉遜俊駿舜 順閏潤問紊 頓鈍盾遁囤 頓悶濼奔訓 郡困噴論混 寸
嫩褪譚趁

寒山

平聲 陰：山濟刪丹單 殫簞幹竿肝 乾安鞍奸間 艱棺刊看關 綸拴鰥班般 扳頒彎灣灘
攤番蕃藩翻 反珊刪攀餐 殷

陽：寒邯韓汗翰 闌蘭欄爛欄 還環鬢寔圈 殘閑鶻壇彈 檀煩繁帆樊 凡難蠻顏潺 頑

上 聲：反返坂板傘 散晚挽簡揀 產鏟趕稈竿 坦袒罕侃懶 縮盞眼

去 聲：旱悍漢馱翰 瀚汗旦誕彈 但憚萬蔓曼 嘆炭案岸按 幹燦粲璨棧 綻盼饌渲慢 謾
慣贊攢患 幻宦參諫問 澗訕汕疝辦 瓣扮絆飯販 範販泛犯限 晏看燦篡散 難腕

恒歡

平聲 陰：官冠棺觀搬 般歡獾潘端 琬蜿酸浚寬 鑽攢

陽：巒鸞鸞鑿灤 瞞謾漫縵縵 鏹桓丸完紈 專團盤般弁 磬般蟠胖攢

上 聲：館管滿暖浣 卵短

去 聲：喚換煥奂渙 緩玩腕惋幔 鏹漫竄攢躡 斷鍛段蒜算 判拚貫冠觀 灌鶴裸半伴 絆
畔泮鑽亂

先天

平聲 陰：先仙鮮跣煎 箋濺堅肩甄 顛癩巔鶻捐 娟邊編鞭編 喧喧萱煽扇 膾專磚千阡
遷芊軒掀煙 燕咽咽媽牽 騫愆篇扁偏 蹁翩淵冤宛 蜿鴛詮荃悛 宣揅川穿圈 天

陽：連蓮憐綿眠 然燃纏禪蟬 錢前填田闐 畋鈿賢弦絃 懸玄延研研 焉言沿蜓緣 乾虔
元 圓員 園袁猿轅原 源垣援捐鉛 全泉權旋璇 還船傳椽拳 權顴鬚駢胼 便聯孿年涎

上 聲：苑遠阮畹兗 堰偃演衍颯 卷鮮跣洗銑 筦藓癩腆殄 剪翦碾輶輦 珽孿鸞轉轉 貶
扁匾沔眇 免冕喘舛闐 典顯犬淺展 遣軟

去 聲：院願怨遠援 勸券見建健 件絹現獻縣 憲絢殿電甸 靛佃鈿填闐 奠燕硯諺唁 咽
堰彥宴緣 掾眷倦絹圈 綫面片騙變 便遍辯辯卞 弁汴線羨霰 川穿釧扇善 煽單擅 禪鱗
薦箭煎賤濺 餞踐傘旋選 誕傳磚篆戰 顛纏譴牽練 煉戀棟

蕭豪

平聲 陰：蕭瀟綃消銷 宵霄魍硝蛸 刁貂凋梟囂 驍朽捎梢笱 嬌驕焦蕉椒 樵標膘腰飄
杓交交蛟郊 膠教咬包苞 胞嘲抓碉高 膏篙羔糕臯 棹刀刀騷搔 臊繅艘遭糟 鑿朝招昭夭
邀幺腰妖要 飄漂拋脬胞 掏饒刀滔韜 橈哮敲抄坳 凹蒿薨燒褒 掏超鋤操

陽：豪毫號豪豪 遼寮僚聊鵞 饒薨撓苗描 毛茅貓旄髦 饒獠叟撓牢 勞撈撈醪迢 髻調
凋 條跳 佻潮朝韶遙 搖謠瑤窯堯 姚樵譙瞧嗷 螯敖燠遨驚 喬蕎橋翹僑 爻肴洵袍炮 咆
庖跑 匏桃 逃陶萄淘濤 曹漕嘈嘈槽 巢瓢

入聲作平聲：濁濁濯濯鐸 度躡箔薄泊 博學縛鶴涸 鑿鍋著芍

上 聲：小筱皎繳橋 矯裊鳥了燎 蓼杏夭罔繞 嬈擾眇渺杪 藐悄寶保堡 裱葆卯昂狡 攪
矯鉸絞交 姥老僚僚潦 腦惱嫂掃漂 殍剝棗早藻 澡蚤倒島搗 禱縞鎬槁襖 懊媪考考挑 窈
沼少表巧 曉飽爪炒討 草好撓咬稍

入聲作上聲：脚角覺捉卓 琢酌斫灼繳 爍鑠雀鵲拓 托魄索朔郭 廓剝駁爵削 作柞錯閣
各 壑綽諺戳

去 聲：笑嘯肖眺跳 釣吊調掉抱 報暴鮑皂竈 造躁漕料廖 療療傲熬趙 兆照詔召肇 少
紹邵燒號 皓好灑昊浩 道盜導悼到 稻蹈焯要耀 曜鷄叫嬌瞧 醮造操糙峭 俏俏鯨 孝效
校窖教校覺 較酵傲罩桌 笱拗樂凹冒 帽貌耄茂泡 炮告誥勞滂 郜燥噪掃廟 妙 鬧 奧澳
鈔 尿哨竅覆

入聲作去聲：嶽樂藥約躍 鑰諾末幕漠 寞莫沫落絡 烙洛珞酪鰈 萼惡愕弱略 掠虐

歌戈

平聲 陰：歌哥柯科窠 蝌珂軻戈鍋 過砂蓑唆梭 娑挲搓磋蹉 瘥他拖佗詫 阿窩渦倭坡
頗 波玻番呵 訶多麼

陽：羅蘿籬籬螺 騾楞蠹摩磨 魔挪那禾和 何河荷苛駝 陀沓跏馱哦 鵝峨娥俄娥 婆鄙
幡 訛

入聲作平聲：合盒鶴盍跋 魃縛拂活獲 箔勃薄泊勃 度鐸濁濯鐸 奪鑿著

上 聲：鎖瑣果裹螺 裸羸躲娜那 荷可珂軻頗 叵跛簸我左 妥火夥

入聲作上聲：葛割鴿閣蛤 鉢拔跋潑粕 括渴撮脫抹

去聲：賀荷左佐坐 座舵惰墮剝 大馱挫磋銼 禍貨和邏簸 播磨麼臥懦 糯那個餓些 過
課唾破咳

入聲作去聲：樂嶽躍鑰月 幕末沫莫寞 諾弱若落洛 絡烙酪樂鄂 萼鶚鶚亞惡 掠略虐瘡

家麻

平聲 陰：加笳家霞痲 珈袈迦佳嘉 巴疤芭芭蛙 窪媧蝸沙砂 紗裳鯊查查 喳抓鴉丫呀
叉杈差誇蝦 葩花瓜

陽：麻蟆華劃駢 牙芽涯衙霞 瑕遐琶杷爬 茶搽差拿咱 達撻踏踏滑 狷狎轄俠峽 匣洽
乏 伐筏 罰拔雜聞

上聲：媽馬雅啞灑 寡

入聲作上聲：塔瀨榻霎殺 紮筍匝砸插 察法發甲胛 夾答搭塔撒 颯薩笈瞎八 掐恰

去聲：嫁稼價架假 凹胯跨髀亞 迓訝研詫姪 咤怕怕詐乍 榨下夏嚇暇 廈化畫話樺 華
那 罷霸壩 靶靶卦挂罵

入聲作去聲：蠟臘拉辣錯 糲納衲壓押 鴨抹刷

車遮

平聲 陰：嗟奢賒車遮 爹靴些

陽：爺耶呆斜邪 蛇佘癩徕

入聲作平聲：協穴擷俠傑 碣竭疊疊課 牒喋埵蝶跌 凸撇𠵿折舌 涉捷睫截別 絕

上聲：野也冶者赭 瀉寫舍惹若 諾哆姐且

入聲作上聲：薛屑泄泄褻 變切竊妾沏 結劫頰莢怯 挈客節接楫 血歇歛闕缺 闕決訣蕨
譎 饕鐵貼帖撇 瞥鼈別拙輟 澈撤掣轍哲 摺褶浙折設 攝雪說

去聲：舍社射躑赦 謝卸榭瀉夜 射柘鷓蔗灸 借藉

入聲作去聲：聶齧鑷捏臬 躡蔑蔑滅咽 謁葉焯拽業 邴額裂冽獵 列鬣月悅閱 說越別越
鉞 熱劣

庚青

平聲 陰：京庚賡耕羹 更梗涇驚荊 經兢矜精晴 旌菁晶生甥 牲笙猩箏爭 丁釘汀征正
蒸 貞禎兵冰 並燈登轟薨 增曾憎罾錚 爭鏘撐摐稱 秤檉蝗英瑛 應櫻櫻嬰鸚 膺纓縈輕傾
鏗 坑卿馨興 清青鯖升聲 勝聽聽汀星 醒惺腥崩僧 哼兄泓烹

陽：評平萍瓶枰 憑屏聘馮盟 名明銘鳴螟 冥溟冥靈樞 令零聆齡蛉 翎苓伶鈴菱 綾瓴
陵 凌朋 鵬棚楞層曾 能寧藤騰疼 滕騰莖恒羸 盈瀛螢莖營 迎蠅凝擎鯨 行形刑邢衡 情
黥亨 停婷 廷庭蜓霆瓊 澄呈成城誠 承丞乘懲滕 盛熒盲氓萌 薨橫宏弘嶸 橙榮甯仍繩

上 聲：傲景警境頸 梗更硬硬頃 丙炳秉餅屏 醒惺省影郢 穎瘿礦蝻鯁 整拯茗酪皿 騁
逞嶺領鼎 酃頂挺艇釘 冷井請等永

去 聲：敬徑鏡競竟 竟更勁應凝 硬慶磬罄磬 命暝請倩諍 掙鄧凳磴鐙 正政鄭證瑩 並
病柄憑令 凌勝聖剩盛 乘姓性聘聘 凜倭甯淨靜 靖清杏幸興 行脛稱秤定 訂釘贈聽孟 橫
撐亘

尤候

平聲 陰：鬪鳩揪湫搜 颯鄒迢鰓陬 休休謳鷗歐 歐漚區鈎勾 溝篝兜秋楸 鯁尤幽優修
羞饒抽周啁 洲舟丘偷彪 收摺

陽：尤攸疣蚰由 遊郵牛猷猶 悠侯喉猴篋 劉留瘤榴流 騶柔揉蹂鞣 矛眸牟蝨樓 婁樓
體 泗囚 稠綢儔躊仇 酬籌疇惆求 裘球逑仇虬 酋適投頭股 愁

入聲作去聲：軸 逐 熟

上 聲：有酉友牖秀 誘黝罍 扭扭鈕扭丑醜九韭 久玖糾灸疚 首手守數叟 鬥蚪陡抖狗
垢苟枸偶藕 藕嘔歐摟篋 肘耐朽酒剖 吼走否揉口

入聲作去聲：竹燭粥宿

去 聲：又右佑宥幼 囿侑袖晝咒 冑紂宙舅臼 舊咎救廐柩 究受授售綬 壽獸首狩秀 岫
袖繡宿漱 嗽皺驟溜溜 餽瀏瘤扣寇 蔻侯後後埃 厚就鷲豆竇 鬥逗勾溝構 詬購穀鞣湊 漏
陋鏤瘻謬 繆臭嗅瘦逅 奏透質懣

入聲作去聲：肉褥六

侵尋

平聲 陰：針箴砧斟椹 金今衿襟禁 浸深簪森參 柳琛音暗陰 心歆欽衾侵

陽：林淋琳霖臨 任壬妊尋鱗 尋吟淫琴琴 禽擒禽岑沈 涔忱湛堪

上 聲：懷凜稔衽荏 沈審審錦襟 枕飲您怎寢

去 聲：朕沈枕鳩甚 衽荏任禁襟 蔭審飲恁沁 臨淋滲賃

監鹹

平聲 陰：庵鶴諳擔耽 儻眈湛監緘 堪戡龕三甘 柑汨杉衫貪 探參憨酣簪 嵌攬

陽：南楠男喃鹹 銜函爛藍婪 籃嵐覃譚談 曇潭痰慚蠶 含涵邯讒饑 岩

上 聲：敢感覺攬膽 慘喊毯減城 砍坎咎俺黯 斬腩

去 聲：紺贛淦憾撼 頷淡啖擔陷 飴檻濫纜闕 瞰嵌站蘸湛 賺鑿監暫慳 暗三探慘忤

廉纖

平聲 陰：瞻詹占粘沾 霑兼縑鰾淹腌醃 闡馱慙纖鈺儉暹 僉槩籤檐 覘杵炊尖漸殲
拮 苦謙添

陽：廉簾廉奩帘 鮎黏拈擗燂鈴鉗黔蟾蟾 炎閭簷嚴聒恬髻潛嫌

上 聲：掩魘靨掩奄 崦琰剡檢 臉斂臉染苒冉閃陝忝舔險諗颯點詔

去 聲：艷焰厭饜驗灑灑 膽苦欠芡歉玷店 墊激斂殮念脛劔儉僭漸塹茜 染占躡